



[뉴스] KAL이 이룩시킨 국민연금 주주권 '나, 떨고 있니?' 02



Economy

코스피	2107.06 (+0.96)	코스닥	686.35 (-7.03)
금리 (국고채 3년)	1.80 (-0.01)	환율 (원-달러)	1122.50 (+2.40)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 공장 관계자에게 수소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새해 첫 지역경제투어 불 꺼지지 않는 울산서 '수소경제'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투어' 장소로 울산광역시를 택했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는 울산의 다른 이름으로 울산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뛰었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울산경제의 새 희망인 수소경제를 말하고자 한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 99% 국산화를 이뤘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까지 달린다.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 중심에 울산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이유에 대해선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 관련 1억 4000만 배럴의 액체화물 저장시설 및 12만㎡ 압축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는 등 수소 생산·저장에 특화됐다"며 "(또) 세계 최초 수소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도 전국 1위다. 수소경제를 위한 1000여개 기업과 연구계도 조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현장에는 성운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명래 환경부장관·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송철호 울산시장·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울산시와 현대자동차·SK가스·S-OIL·두산·효성 등 14개 기업이 수소경제 관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후 전국 최대 수소를 생산 중인 덕양산업의 울산 제3공장을 방문했다. 덕양산업은 1964년 설립된 산업가스 공급 전문 중견기업이다. 덕양산업은 수소가스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덕양 울산공장을 방문한 후 울산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차량 대사물간>

5G 기반 V2X 기술로 트레일러 군집주행 현실화

현대차-LG U+ 상용차 자율주행 맞손

단독

LG유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업으로 미래차 선점을 위해 5G 상용화를 맞은 만큼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통신사와 완성차 업체간, 미래차 선점을 위한 이종산업간 합종연횡이 붓물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시장은 개인 소비자 중심의 승용차보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구매가 가능한 상용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우선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달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V2X(차량-사물 간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V2X란, 차량과 주변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의 5G 통신망을 활용해 LG전자가 개발한 자율주행 V2X 단말을 여러 대의 현대자동차에 부착해 군집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이번 협업으로 V2X 단말을 장착한 다수의 차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8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9 노스홀에 위치한 현대차 전시부스를 방문, 둥근 코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완성차 업체-통신사 간 미래차 선점 위해 합종연횡 상용차 중심 시장형성 예고 군집주행 땀 물류 효율성 ↑

량들이 서로 위치를 인지해 피해가거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이 가능해지면, 물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현대차는 화물 운송용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 차량으로 약 40km 구간의 의왕~인천 간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한 바 있다.

LG 관계자는 "현대차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자동차끼리 서로 소통하며 달리는 군집 자율주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 등

완성차 업체의 부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며 인사이트를 구하기도 했다.

사업자 뿐 아니라 학계와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한양대학교 자동차전자제어연구실(ACE Lab)과 함께 자사 5G망을 접목해 서울숲~강변북로~성수대교~올림픽대로~영동대교 인근 약 7km의 거리를 25분 동안 주행하며 자율주행차 실증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 또한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이번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포함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달부터 LG유플러스와 상용화 자율주행 기술을 진행하지만 특정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업체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사별로 장점을 파악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현대모비스는 KT와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도 했다. KT는 이를 위해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망을 구축했다. <관련기사 6면>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이용해 올 하반기까지 ▲차량-사물간 통신 기술(C-V2X: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과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벤츠와 자율주행차 기술 협력에 나서 개발 중인 단계"라며 "상용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오픈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T는 2017년부터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협업을 시작해 지난해 평창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초정밀 지도 기업 '히어(HERE)'와 5G 자율주행·스마트시티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즉스, 2차전지 제조 설비사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손잡고 5G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향후 자율주행차는 미래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는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0년 225조원에서 2035년 10배에 가까운 217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는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김나민 기자 ysw@metroseoul.co.kr

'공시가격 현실화' 임박... 세금폭탄 공포 확산

서울 표준주택가격 20% ↑ 강남구 상승률 43% 달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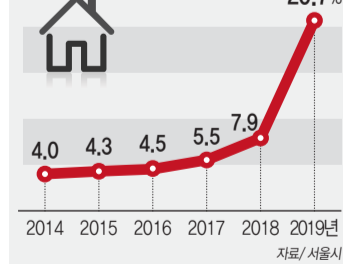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압박 카드인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했다.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임대료·월세 상승, 세금 부담 심화, 건강보험료 증가 등 각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10.19%로 전년(5.51%)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 서울 지역의 변동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서울의 표준주택가격

서울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은 20.70%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의 약 3배다. 서울의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 2017년 5.53%, 2018년 7.92% 수준이었다.

서울 중 공시가격 오름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평균 상승률

만 42.8%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 성동구 24.6%, 동작구 21.9%, 서대문구 19.2%, 중구 18.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3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북지역 5억원 이하 주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성수동1가 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4억3000만원에서 2019년 37억9000만원으로 165% 오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8억3800만원이어서 올해 15억6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86% 된다. 동작구 흑석동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6억1100만원에서 올해 8억7600만원으로 43.4% 높아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420만 여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 여 가구를 추려내 가격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 이를 통해 산정되는 세금·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8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KAL이 '이륙'시킨 국민연금 주주권 남양유업 등 상장사 "나, 떨고 있니?"



국민연금, 297곳 지분 5%이상 보유
기업 스튜어디스십코드 활성화 전망
대림산업·남양유업 등 다음 타깃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본격 나서면서 대한항공·한진칼 이후 다음 기업이 어디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낮은 배당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은 297개다. 이중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8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화승엔터프라이즈(13.88%)다. 이밖에 한진칼(13.47%)을 비롯해 한솔제지(13.62%), 동아에스티(13.43%), 한국콜마(13.41%), BNK금융지주(13.33%) 등도 13% 이상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9개사의 국민연금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10.73%, SK하이닉스 5.08%, 현대차 9.2%, LG화학 12.47%, 셀트리온 12.7%, 포스코 9.21%, 네이버 7.03%, 한국전력 11.99%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십코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튜어디스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스튜어디스십코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스튜어디스십코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공적연금이란 특성상 대한항공·한진칼과 같이 주주가치 훼손 등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먼저 국민연금 금융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원칙' 중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점관리사안이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

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분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했지만 개선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림산업,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등을 다음 타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지분 10.09%를 소유하고 있다. 오는 3월 21일 장달중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장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연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저배당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을 각각 9.63%, 8.76%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민변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변화되고 있으나 부결된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주주권 행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행사를 구분하는 비현실적이고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디스십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올 신입사원 채용 60% 불과 전년비 15%p↓... 취업 먹구름

기업 628곳 정규직 채용 계획

신입사원 초봉 평균 2536만원
경력 채용 기업도 51.6% 불과



올해 기업들의 신입·경력 채용 규모가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사람인이 기업 62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올해 신입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59.6%로, 지난해 신입을 채용했다는 응답(75%)보다 무려 15%포인트 적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건 201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신입 채용 방식은 기업 10곳 중 7곳이 '수시'라고 답했다. '공채와 수시 모두' 활용하는 기업은 21.4%였으며, '공채'만 뽑는 곳은 9.6%였다. 신입 채용 시기는 절반을 약간 넘는 51.3%가 '상반기', 하반기 모두를 뽑았다. 이어서 40.1%는 '상반기'를 선택했으며, 8.6%는 '하반기'라고 응답했다.

올해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253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입사원 채용 예정 분야(복수응답)는 '영업/영업관리'가 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생산'(22.7%), 'IT/정보통신'(16.6%), '서비스'(16%), '연구개발'(13.9%) '재무/회계'(9.1%), '디자인'(7.8%), '기획/전략'(7.8%), '인사/총무'(7.5%), '마케팅'(7.2%) 등이 있었다.

경력 채용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올해 정규직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1.6%로 절반에 그쳤다. 전년(2018년) 경력직을 뽑은 기업이 63.7%인데 비해 12.1%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력사원 채용 방식(복수응답)은 '수시'(74.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취업포털 인재검색'(29.6%), '공채'(23.1%), '사내 추천'(18.8%), '헤드헌터'(9.9%)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선호하는 경력 연차는 평균 4.6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차'(47.8%, 복수응답), '5년차'(37.7%), '2년차'(23.8%), '1년차'(18.8%), '4년차'(18.5%), '7년차'(12.3%), '6년차'(10.2%), '10년차'(9.3%) 등의 순이었다.

경력사원 채용 예정 분야(복수응답)는 '영업/영업관리'가 26.5%로 1위였다. 이어서 '연구개발'(19.1%), 'IT/정보통신'(17.6%), '제조/생산'(17.3%), '서비스'(15.4%), '기획/전략'(10.5%), '마케팅'(9.3%) '재무/회계'(7.7%), '디자인'(6.8%)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나해와 비슷'(47.9%)하거나 '악화될 것'(41.4%)이라고 내다봤으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0.7%에 불과했다. 올해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지나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52.4%였고,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도 36.9%나 됐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7%로, 전반적으로 채용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한홍수 기자 hys@

JY와 산책 이후 'SK협력사' 찾은 文

文 대통령, 수소경제 보고회 참석 울산 덕양의 수소생산 공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5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17일 울산에 위치한 중견기업 '덕양'의 수소 생산 공장을 방문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투어로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덕양의 울산 제3공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덕양은 1964년 창업된 산업가스 공급 전문기업으로 주력 분야는 '수소가스'로 알려졌다. 실제 덕양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수소속속흡수연구를 2년간 시행했고, 수소저장합금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김기철 덕양 사장은 문 대통령이 울산 공장을 방문하자 "덕양은 지난 2014년 SK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중견기업으로는 '세계 최초 대규모 수소공장'을 이곳에 건립했다"며 "지금까지 대규모 수소공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에너지회사의 전유물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 공장 관계자에게 수소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 (덕양의) 매출액은 약 4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덕양의 수소생산은 도합 시간당 20만m³으로 울산·여수·군산에 수소를 공급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덕양 울산공장을 방문하자 일각의 시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삼성공장 방문'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공장 방문' 제안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후 경제 산책 때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산책 당시 "지난번 인도 삼성공장에 와주셨지만 (이번에는) 국내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다"며 "(다만)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대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한화, 태양광사업 집중... 中 수혜 기대

한화그룹이 올해 태양광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내비친 가운데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앞두고 있어 한화케미칼의 규모있는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올해 태양광,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는 오는 2022년까지 약 9조원을 태양광 발전 장비 생산 공장 신·증설과 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효율적인 태양광사업을 위해 통합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지난해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코리아와 한화첨단소재

를 합병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로 개편하고 한화큐셀은 한화솔라홀딩스에 합병시켰다. 한편 태양광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태양광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재개 등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입지·발전 효율이 높아 보조금이 필요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치 허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의미하는 정책을 펼치자 최근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을 겪었던 태양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이다.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태양광산업의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태양광시장은 중국 외에도 유럽, 미국, 인도, 남미 등에서 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

4년간 장비·공장에 9조원 투자 中 대규모 태양광프로젝트 재개



문 대통령 전국 경제투어

1 2018년 10월 30일 — 재생에너지 사업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부지 방문  <p>“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p>	2 2018년 11월 8일 — 철강기술 경북 포항 포스텍 4세대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방문  <p>“포항, 철강산업 중심지이자 한반도-극동-일본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도시로 발돋움”</p>	3 2018년 12월 13일 — 제조혁신 경남 창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 참석  <p>“제조업 혁신이 일어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가 살아난다”</p>	4 2019년 1월 17일 — 수소경제 경남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보고회' 참석  <p>“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 그 중심에 울산이 있다”</p>
--	--	---	--

군·포·창·울... 경제난 해안벨트 두드리는 '文 혁신투어'

(군산·포항·창원·울산)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 "성장 지속에 필요한 것은 '혁신' 혁신으로 산업부흥·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외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남 울산 등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등 경제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4번째 지역경제 투어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와 연관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 때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면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은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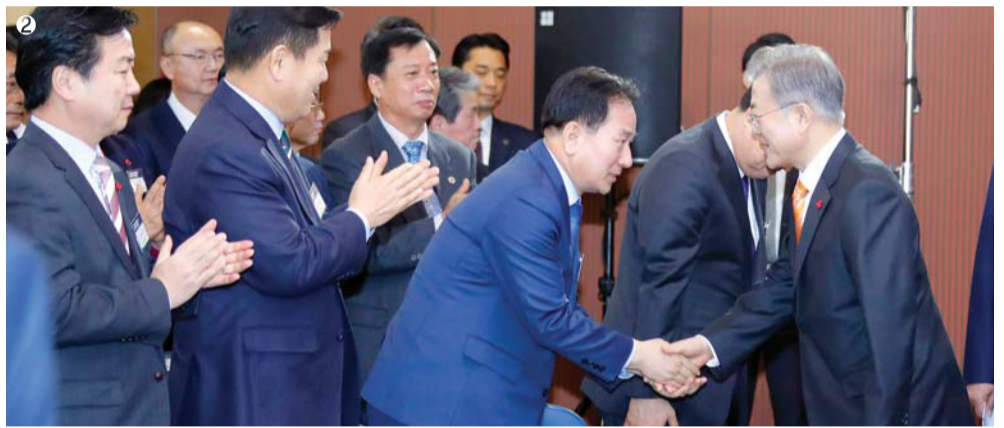
문 대통령이 울산에서 수소경제 혁신 성장을 외친 이유는 울산에 수소경제의 기반이 되는 1000여 기업과 연구계가 조성됐고, 수소 생산 및 저장에 특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찾은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도 각 지역에 맞는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1차 지



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활용 모델리티(수소차, 드론 등) 부스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으로 부터 수소를 이용한 드론에 관해 설명 듣고 있다.



②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③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능하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8일 2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 4세대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스텍과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이 포항 철강-구미 전자-대구 의료와 만나 탄탄한 스마트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지이자 한반도-극동-일본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3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

언에서도 이 같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수소경제 '성큼'... 수소차 3000만원 시대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 수소차 사업 탄력 '넥쏘' 글로벌 판매 목표 6000여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가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의 리딩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차 개발 역사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연료전지 개발을 본격화한 현대자동차그룹은 같은 해 11월 신타페를 모델로 연료전지차를 처음 선보였다.

2004년 미국 전역에서 투싼 연료전지차

32대를 운행했고, 2008년에는 투싼 연료전지차 2대와 스포티지 연료전지차 1대 등 자체 개발한 차량으로 미 대륙 동서 횡단에 성공했다.

2013년 초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양산 체제를 갖추고 투싼ix 수소차를 상용화했지만, 높은 차량 가격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차세대 수소차인 넥쏘를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넥쏘는 609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고효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통한 짧은 충전시간, 높은 수소탱크 안정성, 기술력이 집약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6890만~7220만원이지만, 작년 기준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3390만~3720만원으로 낮아진다.

넥쏘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949대가 판매됐다. 내수는 727대, 수출은 220대로 주요 수출시장은 유럽과 북미 지역이다. 현대차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넥쏘의 글로벌 판매 목표를 6000여대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5년 수소차 10만대 양산체제가 갖춰진다면 수소승용차 가격이 현재의 반값인 3000만원대로 낮아지는 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조금은 현재 하이브리드차 정책처럼 수소차 및 수소 충전가격 하락에 맞춰 단계적으로 줄다가 10만대 양산 시점에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승용·상용)의 수소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약 124곳의

주요 부품 협력사와 2030년까지 연구·개발(R&D)과 설비 확대에 모두 7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해 현대모비스 충북 충주 공장에 제2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을 2022년

까지 4만대로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작년 12월 열린 충주 제2공장 신축 기공식에서 "수소차처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과 현대차그룹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글로벌 에너지 변화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일부 저축은행 대표, 회장 후보자에 무리한 각서 요구설

저축銀중앙회장 선거, 유예론 제기

노조 “회원사 과도한 지배 개입”
갑질 의혹 등에 회추위 교체 요구
중앙회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일축
한이헌 후보 사퇴... 2명으로 압축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가 진흙탕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장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사모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 후보자에게 임직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회장의 고유권한인 중앙회의 인사 등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일 회장 후보자와 연관 있는 A저축은행 김 모 팀장이 중앙회 부서장에게 연타해 임직원의 급여데이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회장 후보자에게 연봉 삭감과 같은 각서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원사의 갑질 횡포를 떠나 중앙회에 대한 과도한 지배 개입”이라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같은 일부 회원사의 갑질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저축은행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에 소속된 일부 회원사 대표가

지속적으로 중앙회 전무이사 자리와 지부장단회의의의장에 저축은행업계출신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중앙회가 이같은 갑질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부장단회의가 중앙회의 예산통제 권한과 이사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저축은행 간 신용질서 확립과 고객 보호라는 중앙회의 설립 목적이 훼손돼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중앙회는 회장 선출을 담보로 각서 등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사의 회추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추위를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오는 21일 중앙회장 선출 총회를 즉각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해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의 지부장단회의에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회 입장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부장단회의와의 관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회의 조사권 행사와 자율규제 기능 및 광고심의 규제가 회원사의 입김으로 위축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중 한 명인 한이헌 전 국회의원(75)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전은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65·기호 1번)와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61·기호 2번)으로 압축됐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성평등 지수 높다”

블룸버그,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블룸버그가 발표한 ‘2019 성평등 지수(Gender-Equality Index·GEI)’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성평등 지수(GEI) 우수기업은 미국 블룸버그(Bloomberg)사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총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관련 내부통계 ▲여성인력 운용 정책 ▲지역사회 공공지원 활동 ▲성평등 관련 상품·서비스 등 4개 부문의 약 7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 발표한다.

이번 발표된 2019년 성평등 지수(GEI) 우수기업에는 전세계 36개국 230개사가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미국 은행 오브 아메리카, 프랑스 BNP파리바, 일본 미즈호 그룹 등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0년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여성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바 있으며, 여성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를 신설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 경연인사에서 신한 쉬어로즈 1기인 왕미화 부문장과 조경선 부행장이 여성 임원으로 발탁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銀, ‘은행업 재설계’로 혁신 선언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

BNK부산은행이 기존 낡은 은행업의 틀을 과감히 깨는 혁신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은행이 되자며 ‘은행업 재설계(Redesign Banking)’를 선언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16일 기장연수원에서 경영진 및 부실집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경영방침을 결정,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부산은행의 전략방향은 ▲고객 중심 ▲지역중심 ▲디지털중심 ▲혁신 지향 등 4가지다. 이를 위해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중심적 마케팅 추진,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채널 및 업무 혁신, 고객지향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의 생활 속, 마음 속 은행’ 구현,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인 BNK부산은행장은 “모바일 발달에 따른 셀프화 등으로 인한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감소 추세에 따라 창구에 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고객’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객을 보는 관점을 비롯해 데이터와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생각의 대전환’으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SC제일銀, SC그룹서 1000억 투자 유치

6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ROE 등 수익성 지표 개선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을 추가 투자받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SC그룹 인수조건 10년 만기 원화 후순위채권(6000억원) 발행과 2019년도 중간배당(5000억원) 지급을 통한 자본구조 개선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배당 규모보다 1000억원이 많은 후순위채권 발행 및 인수를 통해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형식이다.

이로써 SC제일은행은 1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상승과 자본구조 개선을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BIS 비율이 16% 중반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국내 은행 중

가장 선도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구조 및 적정성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SC그룹의 투자 확대도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 면모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벨소프트와 손잡고 외환업무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환전업무 강화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벨소프트와 외환업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한영 우리은행 외환그룹장, 이종일 ㈜벨소프트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환전, 송금 등 외국환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환전에 필요한 외국통화 조달을 지원하고,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사의 업무 역량을 공유할 계획이다.

㈜벨소프트는 2018년 무인환전서비스를 출시한 핀테크 업체로, 지하철 김포공항역, 남산타워, 주요 호텔 및 쇼핑몰 등 13개 장소에 무인환전기기를 운영중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벨소프트와 ‘외환업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한영 우리은행 그룹장(오른쪽)이 이종일 벨소프트 대표이사(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인천공항 등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벨소프트의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홍민영 수습기자

KEB하나은행, 피후견인 재산 관리 나선다

울촌과 ‘임의후견·신탁제도’ MOU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울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연구, 활용,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

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울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mh@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울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위한 ‘NH새내기직장인대출’

NH농협은행 최대 300만원 한도

NH농협은행은 직장에 갓 입사해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상품인 ‘NH새내기직장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NH새내기직장인대출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또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3.43%(2019년 1월 16일 기준)까지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삼성전자 2019년형 '무풍에어컨' 공개

가구 같은 가전... '뉴 빅스비' 품고 온·습도 알아서 척척

〈삼성의 독자적 인공지능 플랫폼〉

성능은 기본 인테리어 요소 가미 고성능 서큐레이터로 바람 풍성 8단계 세기 조정... 전기료 절감 고객의 패턴 7가지 인자로 학습

성능은 기본에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가미한 디자인의 가전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가구 같은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공개했다. 이전 무풍 에어컨 제품들과는 달린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디자인 팀 최경열 전무는 "무풍 에어컨은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디자인"이라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제품이 아닌 집안 풍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일상의 편안함을 만드는 디자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바람문을 무풍 패널 안으로 숨겨 제품을 작동시킬 때나 꺼둘 때 외관상 변화가 없다. 또한 제품 상단에 라이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에어컨 작동 모드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파



삼성전자 모델들이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랑색 등의 조명과 함께 정보를 띄워준다.

◆강력해진 고성능 서큐레이터 장착

성능은 더욱 강력해졌다. 전자들에 대비해 이번 신제품에서 달라진 부분은 고성능 서큐레이터를 장착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세계 최초로 무풍에어컨을 출시한 후 2017년 무풍에어컨 라인업을 확장했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했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무풍패널 안쪽에서 강력한 냉기를 뿜어내는 3개의 '하

이패스 팬'에 바람을 위로 끌어올려 멀리 내보내 순환시키는 '서큐레이터 팬'까지 새롭게 더했다. 기존 대비 20% 더 풍성한 바람을 빠르게 순환시켜 사각지대 없는 공간 냉방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한층 강화된 '와이드 무풍 냉방'이 적용됐으며 무풍 패널 면적이 기존 제품 대비 두 배 커졌다. 냉기를 균일하게 흘려보내는 '마이크로 홀'의 개수도 13만5000개에서 27만개로 두 배 증가했다. 제품 뒷부분에는 전자보다 1.5

배 커진 흡입구를 장착해 더운 공기를 한번에 더 많이 빨아들인다.

기능은 높였지만 전기료는 낮췄다. 0.5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8단계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전기비 절약도 가능하다. 미세제어, 바람세기 단계가 넓을수록 에너지의 세밀한 조절뿐 아니라 절전 효과도 크다. 기존 제품들은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6단계 바람 세기를 갖추고 있었다.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팀 관계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스탠드 형 무풍에어컨의 전기료 개선량은 30% 이상"이라며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풍에어컨의 청정 기능도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극세필터·전기집진필터·탈취필터로 이루어진 'PM1.0 필터시스템'과 미세한 전기장 방식으로 지름 0.3μm(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제거할 수 있는 'e-헤파(HEPA) 필터'를 더해 최대 113m³의 넓은 공간도 빠르게 청정할 수 있다.

◆더 똑똑해진 '뉴 빅스비' 탑재

2019년형 무풍에어컨에는 삼성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 뉴 빅스비가 탑재

돼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전면 상단 오른쪽에는 빅스비 로고가 박혀있다.

30회 이상 사용한 고객의 사용패턴을 온도, 습도, 외부온도, 외부 습도, 작동시간, 바람세기, 청정 등 7가지 인자로 학습한 뒤 사용자가 선호하는 모드로 알아서 운전해준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나의 생활습관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음성으로 무풍에어컨과 연결된 벽걸이 에어컨·공기청정기·TV 등 삼성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증권 등의 생활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구분해 맞춤 제어하는 '화자인식' 서비스와 실내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제품 유지보수 방법이나 절전 가이드를 알려 주는 서비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반기 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빅스비가 탑재된 작년 에어컨 제품들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세윤 기자 yun2514@metroseoul.co.kr

'실패해도 괜찮아'... SK하이닉스, 사내 벤처 사업화



‘하이개라지’ 출범

올 접수 아이디어 중 6개 선정 12억 지원... 최대 2년간 컨설팅

SK하이닉스가 사내 벤처 프로그램 6개를 사업화한다.

SK하이닉스는 17일 이전에 있는 본사에서 '하이개라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이개라지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해 8월 처음 공모를 시작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240건이다. 이 가운데



17일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전 본사에서 열린 사내벤처 '하이개라지(HiGarage)' 출범식에서 이석희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사내벤처 주인공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데 6건이 육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금은 총 12억원이다.

직원들은 별도 전담 조직으로 이동해

최대 2년간 컨설팅 등 준비 과정을 마친 뒤 창업과 사내 사업화를 선택하게 된다.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에도 재입사를 보

장한다.

'테스트 공정용 질러 장비 국산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에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외국산 점유율이 높다. SK하이닉스 김형규 기장이 제안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반도체 공정 데이터 모델링 기술'도 육성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하이개라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매년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하이개라지는 SK하이닉스가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사업화를 성공시켜 그간의 노력들을 결실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CNS 이더리움 연합 회원사 가입

글로벌 3각 공조체제 구축

LG CNS가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 회원사가 됐다고 17일 밝혔다.

EEA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이다. 지난 2017년 출범했으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 500여개가 참여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에는 금융에 특화된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번 EEA 가입으로 LG CNS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기업용 블록체인 3대 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EEA, 하이퍼레저, R3 등 3개 단체는 각기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기업용 기술을 다룬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업계는 이들 3개 기술을 기업용 글로벌 톱 3 블록체인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용 블록체인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사전에 합의한 사용자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가 필요 없는 구조다.

LG CNS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으며, 1월말 시범서비스 오픈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 문서 인증, 디지털 신분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토대로 구축되며 모나체인의 기반 기술이 바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다.

/구세윤 기자

세계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은?... 'LG 그램 17'

세계 기네스 협회서 인증 받아 LG, 기네스 월드 레코드 3개 보유

LG전자는 자사의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7'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등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기네스 협회는 미국·영국 등 7개국에서 판매 중인 약 150종의 17인치 노트북 무게를 측정해 결과, LG 그램 17이 가장 가볍다고 인증했다. 이로써 LG전자는 14인치와 15.6인치 LG 그램에 이어 17인치 모델까지 모두 3개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보유하게 됐다.

LG 그램 17은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1340g에 불과하다. LG전자

는 2014년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을 론칭한 이후 초경량 노트북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왔다. 13.3, 14, 15.6인치에 이어 올해에는 최대 크기 모델인 LG 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까지 적극 공략하고 있다.

LG 그램 17을 포함한 LG 그램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출시 후 15일 만에 3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 가량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단 기간 내 3만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특히 LG 그램 전체 판매량 가운데 LG 그램 17, LG 그램 15 등 대화면 모델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LG 그램 17은 2560×1600 해상도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구현한다. 이 제품의 화면 비율은 16:10으로, 16:9 비율보다 아래쪽에 숨겨진 화면을 더 보여줘 사진·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이 더 편리하다.

이 제품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한 'CES 혁신상'을 비롯해 리뷰닷컴, 테크레이더 등 해외 유력매체들로부터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LG 그램이 연속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기록한 것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 마케팅도 진행한다.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상영관에 LG 그램 이름을 딴 전용관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을 위한 LG 그램 17 체험공간도 마련



LG전자는 자사의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7'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등재됐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했다. 'LG 그램관'은 6월 말까지, 제품 체험공간은 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구세윤 기자

현대모비스-KT, 미래차 개발 손잡다

車 제어시스템 + 5G 통신... 커넥티드카 개발 본격화

서산주행시험장에 5G통신 개통 C-V2X 등 연내 기술확보 총력 협력 통해 커넥티드카시장 선도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대도

현대모비스가 KT와 손잡고 자율주행-커넥티드 미래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커넥티드 기술 개발을 위해 통신사와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와 KT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을 개통하고, 이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KT가 서산주행시험장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것이다.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바탕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 ▲차량 사물 간 통신(C-V2X, Cellular Vehicle to X)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은 선행 차량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서버로 보내면,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해 후행 차량들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최적의 주행경로 업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 구현 개념도(왼쪽)와 5G 인프라를 활용한 엠빌리 자율주행차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현대모비스

데이트를 통해 안전하고 빠른 주행을 가능케 하는 자율주행시대 핵심 기술이다.

현재 통신사와 IT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4G에 비해 통신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5G망을 이용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회사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엠빌리(M.Billy)의 각종 센서들을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주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를 추출해 서버로 송신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KT는 엠빌리에 장착되는 5G 단말기와, 5G 통신 기지국 간 연결을 지원한다.

C-V2X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차량

과 인프라, 다른 차량, 보행자 등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은 현대모비스가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 시스템을 전담하고, KT는 교통정보 서버와 인프라 장치를 이용해 도로공사 정보, 신호 등 정보, 급커브 경고 등을 차량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현대모비스와 KT는 이들 기술을 시작으로 협력분야를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 전방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2015년 2400만대였던 전 세계 커넥티드카 판매량이 2023년 725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RM은 2017년 커넥티드카 시장은 82조원 수준에서 2025년 245조원으로 연평균 1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양사의 기술협력으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다. 특히 5G의 빠른 처리 속도에 즉각적인 응답성, 높은 신뢰성, 지속적인 효용성을 접목해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미래자동차 센서와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은 물론,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분야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T도 세계 최고 수준의 5G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플랫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재호 현대모비스 EE연구소장(전무)은 “커넥티드카는 차량 외부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간 협력이 활발한 분야”라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기술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KT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된 만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커넥티드카 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아이오닉 3년 만에 재탄생

‘더 뉴 아이오닉’ 본격 판매 FCA 등 안전기술 기본 탑재 ‘그린존 모드’ 신규 사양 적용

친환경차의 대명사 아이오닉이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내·외장 디자인을 변경하고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한 ‘더 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플러그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더 뉴 아이오닉에 동급 최초로 ▲10.2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LF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특히 별도의 선택사양을 적용하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 폰 커넥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기본 적용했으며, 기존에 가장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사양으로 적용할 수 있던 ▲전방 충돌 경고(FCW)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경고(LD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지능형 안전기술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외장은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램프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적용하고 ▲입체적인 패턴이 더해진 메쉬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커튼이 통합적용된 주간주행등(DRL) 램프부 ▲신규 컬러가 적용된 리어 범퍼 ▲신규 디자인 휠 등으로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확보했다.

실내는 ▲인조가죽 시트 ▲인조가죽을 적용한 클러스터 하우징 ▲온도 조절부를 터치 타입으로 적용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구현한 터치 타입 공조 컨트롤 ▲패적한 실내 공기를 위한 마이크로 에어 필터 및 공기청정모드 등을 전 트림에 기본화했다. 최상위 트림에는 크래쉬패드 무드램프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현대차는 친환경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더 뉴 아이오닉에 특화된 신규 사양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밀집주거 지역, 대형병원, 학교 등 그린존 내부도로 진입 시 모터 주행을 확대하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GDM)’를 제공한다.

더 뉴 아이오닉의 모델별 가격(개별소비세 3.5%, 세계 혜택 후 기준)은 하이브리드 ▲I트림 2242만원 ▲N트림 2468만원 ▲Q트림 2693만원, 플러그인 ▲N트림 3134만원 ▲Q트림 339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고객만족 최우선... 4년 연속 수입차 1위 도전”

실라키스 벤츠 사장 신년 간담회 작년 수입차 첫 7만대 판매 돌파 올 14개 신차출시로 성장 가속화

“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고객 서비스 등 퀄리티를 높여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4년 연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수입차 업계 최초로 7만대를 돌파하며 3년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신차 14개 출시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라키스 사장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혁신과 차별화를 추구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한해여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와 경제의 동반자이자 수입차 업계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벤츠 코리아의 판매 성장을 이끈 모델은 E클래스다. 지난해 3만5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SUV 모델도 수입차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상반기 출시된 더뉴 GLC 350e 4매력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하반기 선보인 더뉴 CLS와 부분 변경된 더뉴 C클래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벤츠 코리아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최초 순수 전기차 더뉴 EQ를 출시하게 될 올해를 ‘EQ의 해(The Year of EQ)’로 삼고, 최대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더뉴 EQC 출시와 함께 구매자에게 통합충전 서비스 ‘메르세데스미 차지(Mercedes me Charge)’를 제공한다.

더뉴 EQC 구매자는 전국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맞춤형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1대1 컨설팅 서비스 ‘EQ 컨시어지(EQ Concierge)’, 인접한 공용 충전소 위치 및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앱 ‘메르세데스미(Mercedes me)’와 EQ 환경에 최적화된 차량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받는다.

벤츠 코리아는 순수 전기차 및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외에 9종의 신차, 6종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벤츠 컴팩트카 패밀리를 완성할 더뉴 A클래스 세단,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를 개척한 더뉴 GLE, 메르세데스-AMG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4도어 스포츠카 더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가 대표 모델이다. 또 모든 라인업에 걸쳐

30여개 이상의 새로운 트림을 추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서비스 인프라 확장 및 품질 강화에 투자를 지속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4개의 공식 전시장과 64개의 공식 서비스센터, 21개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 1100여개의 작업대(워크베이)를 갖춰 수입차 단일 브랜드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최고의 고객 경험’이라는 가치 아래 서비스 인프라 확장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며 “올해는 전시장 60개, 서비스센터 7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객의 연평균 서비스 예약 대기일은 1.6일로 전년 대비 36% 단축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가 누적 1만5500명을 넘어섰으며, 35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김치를 담가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실라키스 사장은 소개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일회용품으로 아픈 지구를 살리는 쉬운 방법?

igreenwegreen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쓰자

대한민국 아그위그 챌린지

I GREEN WE GREEN

좋아요 51,635,256개
igreenwegreen

#아그위그챌린지 #텀블러트리 #지구살리기 #일회용품노노 #맹그로브나무기부 #쉽다쉽다 #함께해요

실제 맹그로브 숲
열대우림보다 5배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SNS에 #텀블러트리를 인증하고 함께할 친구를 태그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이 복원 중인 베트남 맹그로브 숲에 나무 1그루가 더해집니다



아그위그챌린지는 **SK 이노베이션**이 함께합니다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아그위그챌린지 자세히 보기
<https://skinnnews.com>

공시가격 20~30% 급증땀 서울 기초수급자 2만명 탈락

» 1면 '공시가격 현실화 임박...서 계속

매수심리 위축에 주택거래 '절벽'

취약계층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가 감소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급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내년엔 주택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르면서 서울 지역에서만 1만1000~1만9000여 명이 기초연급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후폭풍

이 예고되자 매수심리가 위축돼 이미 주택거래는 '절벽' 수준이다. 이달 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422건으로 일평균 26.4건이 신고됐다.

이는 작년 12월 일평균 32.1건에 비해 17.8%, 작년 1월의 42.3건에 비해서는 37.6% 감소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선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공개, 거래세 조정 등 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특히 서울 지역 고가주택이나 한강변, 강남권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상향 등과 겹쳐 과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형평성을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급격한 상승,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반영률 미공개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과다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거래세를 낮추던지 등 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13일 표준지 공시가격, 4월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일반주택 가격을 공표한다. 소유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재산세를 내고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게 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370명의 2018 신입회계사들이 KPMG Korea 5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상정KPMG

KPMG 韓 진출 50주년... 엠블럼 등 선배

글로벌 회계법인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KPMG가 한국진출 50주년을 맞았다.

회계법인 삼정KPMG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한국진출 50주년 기념 슬로건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0년에 이어 앞으로도 회계업계를 선도하고 자본시장 발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자는 의미를 담

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정KPMG는 올해 대내외 발간물과 기념품 등에 쓰일 50주년 기념 엠블럼도 함께 선보였다.

KPMG의 전신인 PMM(Peat Marwick Mitchell)은 1969년 1월 글로벌 회계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서울사무소를 열었다. 그 뒤 2000년에 삼정회계법인과 KPMG가 독점적인 멤버십 제휴를 맺으면서 삼정KPMG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민호 기자

4억 내린 급매물도 '관망'... 서울 6년래 '최악 거래절벽'

1월 하루 평균거래 57.2건 불과

전달비 23.1%, 전년비 82.6% ↓

연말 연초 서울 주택거래가 썰렁 얼어붙었다. 2013~2014년 주택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16일 현재 915건이 신고됐다.

이는 일평균 57.2건이 거래된 것으로 12월(총 2304건)의 하루 74.3건에 비해 23.1%, 작년 1월(총 1만198건)의 하루 거래량 329건 대비 82.6% 감소한 것이다.

이달 거래량 추이를 고려할 때 2013년 1월 1196건이 거래된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3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와 재건축 규제, 반값 아파트(보급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을 때다. 전문가들은 올해 거래량이 당시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8월



집값 상승으로 9월과 10월에 각각 1만 2243건, 1만121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이후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보유세 강화 조치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고점 대비 3억~4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추가 하락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관망하며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거래량은 1월 16일 기준 46건으로 구 전체의 하루 평균 거래 신고 건수가 2.9건에 그쳤다.

작년 12월 대비 15.9%, 작년 1월 대비 87.1% 감소한 수치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현재까지 신고 건

수가 각각 34건, 46건으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각각 1.6건, 2.9건이다.

지난해 1월 1021건이 거래된 용산구는 올해 1월에는 16일 현재 신고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

최근 거래량 감소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달 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422건으로 일평균 26.4건이 신고됐다.

이는 작년 12월 일평균 32.1건에 비해 17.8%, 작년 1월의 42.3건에 비해서는 37.6%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작년대비

최대 200%까지 크게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16일 현재 각각 3건에 그쳤고 송파구 4건, 용산구 16건, 중구 9건, 성동구 14건, 동작구 11건, 마포구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월 현재 1천 467건(일평균 91.7건)으로 작년 12월 대비 16.4%, 작년 1월 대비 18.0% 각각 감소했다.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 거래량도 각각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말 이후에도 당분간 거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대출 규제 등 9·13대책에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며 "거래시장이 한동안 위축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중권 다이제스트



키움증권

키움파트너스 서비스 오픈

키움증권은 최근 투자자 맞춤형 종목 추천 서비스인 키움파트너스 서비스를 오픈했다. 키움파트너스는 초보·직장인·전업 투자자용 3가지 포트폴리오 중 본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보' 포트는 매매가능 가격 범위 지정과 종목별 평가 점수를 '직장인' 포트는 예약매매 가능 가격 그리고 '전업' 포트는 실시간 추천 및 주간·월간 수익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종목추천 외에도 오늘의 시황 및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성향별 실적매매 기법 동영상도 제공한다.

/손영기 기자

NH투자증권

노후준비 핸드북 발간

NH투자증권은 17일 노후준비가 부족한 우리 농가에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융소득 증대 방안을 알리고자 '범농협 가족을 위한 노후소득 늘리기'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그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연금과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했다.

/김민호 기자

'세계최초' 차세대 전해질 상용화... 영업이익률 4년연속 20%

IPO 간담회

천보

21·22일 수요예측, 28·29일 청약 "단가 5배... 질 좋은 소재로 차별화"

2차전지용 첨단소재 기업 '천보'가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첨단 정밀 화학소재 기업 천보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다. 천보는 21, 22일 양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3만 5000원~4만 원)를 확정하고 28, 29일 청약을 실시한다. 상장은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됐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될

시, 공모 전체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천보는 ▲전해질과 전해액첨가제 등 2차전지 소재 ▲액정표시장치(LCD) 식각액 첨가제 등 전자소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반도체 공정 소재 등 전자소재 ▲의약품의 중간체 등 첨단 화학소재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천보는 2차전지 소재를 중심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2014년까지 디스플레이 소재가 천보 매출 구성의 53%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부문을 키웠고, 2014년 3%였던 이 사업 비중을 2018년 26%까지 끌어올렸다. 이상용 천보 대표는 "2020년에는 50% 정도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보는 특히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중대형 리튬 2차전지의 안정성 향상과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차세대 전해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했다. "단가가 타사의 동일 제품보다 약 5배 높지만 그만큼 질 좋은 소재를 만들어 차별화를 둔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2차전지용 전해질 기술 선점뿐 아니라 세계 최다 전해액 첨가제 품목 보유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2차전지용 소재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보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36억 원, 영업이익 176억 원, 당기순이익 148억 원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해



이상용 천보 대표가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배한남 기자

3분기까지도 20% 이상을 달성하며 4년 연속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배한남 수습기자 ericabae1683@



신규투자자 3兆 시대 열었는데... 벤처캐피탈, 주가는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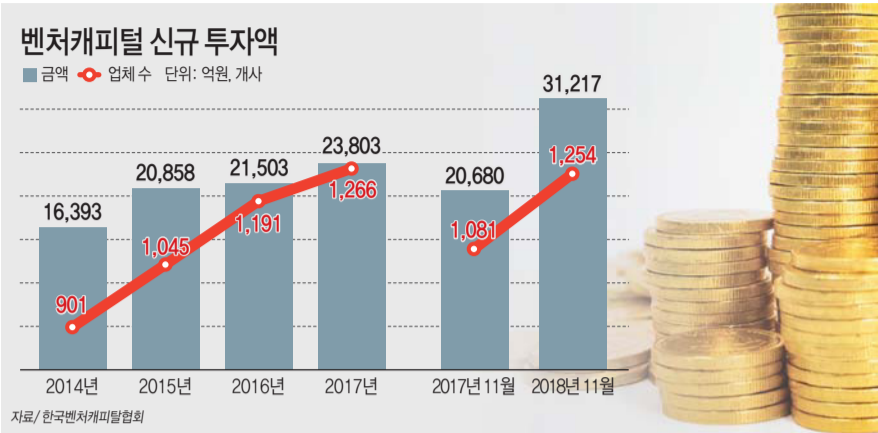
신규 투자액 전년동기비 51% 증가
주가 하락에 IPO 앞두고 상장 주저

지난해 벤처캐피탈(VC)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펀드도 대거 등장하면서 벤처투자 활황기를 이어갔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VC 종목은 찬밥신세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VC들은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로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

1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VC의 신규 투자액은 3조1217억원으로 전년동기(2조680억원)보다 51.0% 증가했다. 12월 실적까지 반영하면 지난해 VC들의 신규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펀드는



14개가 결성됐다. 연 평균 3개 정도 결성되던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14개 펀드의 결성총액 규모만 2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다는 방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벤처 정책과 민간제한 펀

드 도입 등으로 민간 출자로 결성된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8300억원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배정하는데 이어 지난해에도 4500억원을 배정했다. 펀드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VC 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상황과 달리 지난해 상장한 VC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해 27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SV인베스트먼트는 현재 공모가(7000원)를 44% 이상 하회하고 있다. 또 국내 4위권의 대형 VC인 아주IB투자 주가 역시 공모가(1500원)를 30% 가량 밑돌고 있다. 린드먼아시아(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수익률 -20.7%), 나우아이비캐피탈(“ 48.6%)도 부진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던 VC들이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장된 VC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제 값을 받기도 어렵다. 실제 아주IB투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

배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사이 코스닥 시장에서 승인을 받고 상장을 준비 중인 VC는 총 3곳(케이티비네트워크, 네오플릭스, 미래에셋벤처투자)이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곳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투자 설명회와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상장 절차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IB 담당자는 "VC들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지만 앞서 상장한 VC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장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상장 승인 후 6개월 안에 상장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2분기쯤 VC들의 상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기관서 주식 빌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증권금융 기자간담회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접근성 개선 위한 대주 재원 확충
대출 늘리고 단기자금 지원 확대



35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익일물 환매 조건부채권(RP)에만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일물 RP거래를 확대한다. 지난해 6조588억원 거래규모를 올해 6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올해 증권사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 종목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증권금융 기자간담회에서 정완규 사장은 “자본시장 지원 기능은 증권금융 기본 책무 중 하나”라며 “공매도 거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주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기준 120억원에 불과한 대주잔고를 920억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공매도 가능 종목수는 134종목에서 248종목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정 사장은 “종목수는 대주 이용 상황을 감안해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할인어음, 일중자금거래 등 단기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국내외 경기 둔화가 시작됨에 따라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증권사에 대한 대출 규모는 11조4749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2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나간다.

지난 2017년 하반기 개시한 우리사주 플랫폼 가입 조합 수는 2017년 99개에서 지난해 149개로 50% 이상 늘어났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우리사주 배당조회, 우리사주예탁·인출 등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정 사장은 “우리사주 플랫폼은 조합의 업무간소화와 비용절감 효과와 조합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 사전적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 증권금융회사와 업무 협력을 지속하고 증권금융제도 미도입 국가에는 한국형 증권금융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증권사에 대한 외화대출 확대도 계획 중 하나다. 증권금융의 국제 신용등급은 AAA로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하다. 때문에 외화 조달에 있어 증권사보

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펀드온라인코리아 플랫폼 개편도 연내 마무리한다. 증권금융은 지난해 온라인 펀드 판매 플랫폼인 ‘펀드스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를 인수했다.

정 사장은 “펀드판매시장이 ‘핀테크 기반의 온라인 중심 패러다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록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쉽게 접근해 자신에게 꼭 맞는 펀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펀드 정보 및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새롭게 개편하는 한편, 핀테크 분야의 혁신성장기업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사장이 취임 때부터 “조직문화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유연근무제 확대, 연장근로 관리 강화 등 조직문화를 효율적이고 건설한 강소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규모도 전년보다 39% 증원해 청년일자리창출에 힘쓴다. 지난해 2명의 여성 부사장을 발탁 승진한 만큼 여성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연합뉴스

개인회생 채무조정 때 주담대 포함 신용불량자 주택 경매 막는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채권자 권리 침해 최소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 금융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고,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회생자의 경우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게 되면 주거를 상실할뿐더러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회생으로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회생 기간(3~5년)에는 신용채무 변제액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담보

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다만 연계 채무조정자는 지난해부터 3년으로 축소했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개인회생자는 신용채무액만 상환한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에 영향이 없지만, 연계 채무조정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기 때문에 신용채무액 변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해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희망하는 채무자는 먼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거주주택)이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후 30일이 경과된 자다.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부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 후 5년이상 성실상황이 돼야 정상채권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채권자는 다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고정 이하 채권을 보유하며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채권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컸던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부위의 채무 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황(거치기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나누리 기자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책 나눔 서비스’

대우건설은 지난달부터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동탄역 푸르지오·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등 3개 단지에 ‘책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푸른도서관이 운영 중인 입점한 단지 3곳을 선정해 신간도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단지에 3개월간 100권의 책을 제공하며 3개월 후에 다른 단지로 책을 옮긴다. 푸르지오 한 단지가 9개월 동안 총 300권의 신간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간도서는 기존 푸른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도서로 소설·비소설·경제·요리·아동 등 다양한 장르로 선정된다.

순환제공이 끝난 책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한 단지 중 입주민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우건설’ ‘#푸르지오 서비스’ ‘#라이프프리미엄’ ‘#책나눔 서비스’ ‘#단지명’ 해시태그로 가장 많은 홍보글을 올린 단지에 기증하는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책 나눔 서비스’는 타 푸르지오 단지에도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작년



푸르지오 라이프프리미엄 '책 나눔 서비스'. /대우건설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편해 가드닝 클래스·패티켓 수업·실버세대 건강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책 나눔 서비스’도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입주민의 지적활동 도모와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채신화 기자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구분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현행	개선
연체 90일 이전	요주의	거치기간 (3년 or 5년) 後 6개월	1년
연체 90일 이후	고정, 회수위문, 추정손실	거치기간 (3년 or 5년) 後 5년	1년

신사업 막히고, 규제에 잡히고... 잠 못드는 기업들

R의 공포

④ 기업 체력 방편

#. 지난해 3월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에서 AS·모듈 사업부를 떼어내 현대글로벌비스와 합병,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는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父子)가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한 존속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면 기존의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 구조는 깨끗이 해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달여가 지난 5월 21일, 기존 개편안을 거둬들였다. 정 부회장은 개편안을 거둬들이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절감했다"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에는 벌처펀드로 알려진 미국 엘리엇이 지배구조 개편에 어깃장을 놓은 게 컸다. 이들이 내놓은 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이 같은 엘리엇의 대안은 국내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지결기가 처음도 아니다. 엘리엇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지분을 매입한 후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로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사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반대한 바 있다.

#. LG그룹은 서버원의 소모성자재(MRO) 사업부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대응이다. 서버원은 지주사 ㈜LG가 지분을 100% 보유한

미래성장동력 R&D 위축 우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외국 기업과 역차별 해소해야

회사다. 서버원은 "거래 기업의 구매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MRO 사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장에 제약이 있고 임직원 사기 위축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업 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이 본개입에 뛰어들기 전에 지쳐 가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기업들은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행동주의로 포장한 글로벌 투기자들의 판지 걸기에 체력을 쏟아 부어서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한국경제를 'R(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에 몰아넣을 가랑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콤한 이익에 투자 밀려... 결국 주주에 부메랑

현대자동차그룹과 한진칼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한국판 엘리엇' KCGI(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애기가 나올때마다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들의 등락도 들쭉인다. 소액주주들은 팔장을 끼고 있다. 이들에 편승해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볼 심산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현대차그룹의

단기차익 추구형 주주행동주의 사례

구분	주체	대상	내용
경영권 위협	소버린	SK	경영진 교체 요구
	헤르메스	삼성물산	M&A 위협
	칼 아이칸	KT&G	사외이사 선임 및 공개매수
경영 간섭	KOL	일은증권	계열사 대출 요구
	캐피털그룹	삼성전자	본사이전 요구
	타이거펀드	SK텔레콤	사외이사 선임, 주식 액면분할 등
	헤르메스	한솔제지	우선주 유상소각 요구 등

경우 실적이 나빠진 상태다. 기업이 남은 현금을 배당으로 모두 소진한다면 투자자금이 부족해 향후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엘리엇과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이유다.

국내 한 기관 투자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은 달콤하다. 하지만 미래가치에 투자할 때 그 열매는 크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도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느라 체력이 방전돼 간다. 글로벌 항공사에 파이를 다 빼앗길 판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행동주의 투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은 균형감을 갖춘 올바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CEO가 만들어낸 균형에서 투자자는 새로운 균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 전략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넬슨 펠츠(Nelson Peltz) 트리안 펀드 매니지먼트(Trian Fund Management) 설립자는 "시장은 이미 너무나 효율적이

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대신, 주식을 산 뒤 그 기업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김예구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연구위원은 "기업의 향후 실적을 전망해 투자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 직접 경영에 개입해 기업의 미래 실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자본구조·사업전략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 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거물 칼 아이칸은 1985년 트랜스월드(TWA) 항공을 LBO(차입매수)를 통해 적대적 인수한 후 핵심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극대화해 '기업사냥꾼'의 전형으로 인식(Icahn이 손을 댔 후 TWA는 3번의 부도 후 매각)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e 베이(2014년 말 시가총액 \$71B)·애플(\$641B)·바이오젠(\$83B) 등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하고, S

NS 등 미디어를 통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행동주의 투자로 전환했다.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 산업 효율성 저하
"정부 개입은 결코 시장 실패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유권자의 외면 속에 눈앞의 이익만 쫓는 정치 권력과 정부 관료들의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킨다." 자유주의 경제학 및 통화주의의 대부 데이비드 프리드먼(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이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때 한 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기업 환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인 '재벌 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개혁 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게 과도한 규제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833개가 규제법안이었다.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가 산업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규제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한국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차 혁명 가속화

과기정통부

현대차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 신청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4차산업혁명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제한 없이 기술 실증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고, 정부도 실제 적용 과정을 확인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제도 신청은 첫날부터 19건에 달했다. 그동안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 정부로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받아왔다.

상당수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었다. 단순히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중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 참가가 두드러졌다. 수소충전소를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조인스오토는 폐차 사업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더트라이브는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서 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 성장도 기대됐다. 우아한형제들은 CES2019에서도 선보였던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대학과 연구소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네트워킹센터와 김광의 연구관(오른쪽)이 KT 미래사업협력실 정재필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형 콘센트를 한국전력이 아닌 기업들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차지인'과 IoT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판매를 임시 허가받은 스타코프가 있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체에서 4건이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었다.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해 질병을 예측하는 신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마크로젠, 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정랩 코스메틱 등이 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를 약제로 인정해 보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 부문에서의 혁신도 예고하고 있다. 모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과지를 활성화하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분야 신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데이터 활용 제약을 낮춰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2가지 내용을 신청했다. /김재용 기자 juk@

KAI "2030년까지 항공산업 20조 달성"

김조원 사장 항공산업 간담회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발표
강소기업 1000곳 집중 육성

"항공우주산업은 보다 시스템화된 조직이 돼야 한다. 정부의 군수공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항공우주업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김조원 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은 1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주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항공우주산업의 지난해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가 갈 길에 대해 설명했다.

KAI는 이날 2030년까지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연 2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이 분야 강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조원 사장은 "KAI는 그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이 느슨했다"며 "지속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이 절실하다" 말했다.

지난해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마린온 사고는 20년 KAI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될 것"이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1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주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조원 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다. /정연우 기자

KAI는 지난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항공우주분야의 신규 협력업체 110개를 발굴하고 강소기업의 집중육성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항공우주분야의 협력업체는 총 330여개다.

KAI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은 군수사업보다는 민수사업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연구 개발 분야의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KAI에 따르면 세계 항공우주산업은 군수 시장은 정체기 예상되는 반면 민수시장은 전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의 활성화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KAI의 사업구조는 현재 국내 군수 비중 40%, 완제품 수출과 민수 기계 구조물 비중은 60%로 민수가 균형 잡힌 사업구조로 발전해왔다.

KAI는 고객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될 항공기의 핵심 기술

을 공동 개발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적합한 100석 이하의 중형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세계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기를 다양화하는 한편 개인용 무인이동체(PAV) 개발을 통해 미래형 무인 이동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6년 이후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를 활용한 신규 항공기 개발을 계획 중이다.

한편 KAI는 지난해 경영시스템 재정립, 수리온 양산 재개 및 신규 수주 확대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했다.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19조원에 이른다.

KAI 관계자는 "현재 민수사업과 관련된 투자가 미미한 편이다"라며 "정부 부처별 역할과 권한을 분리하고, 체계적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30년 전통 신지식인
김찬월가모

"연구한 특허가발"
 가모커트기술이 다릅니다.

접착
 클립
 테이프
NO!

정수리
 밀지않고
특허결속
고정가모

다양한
여성용
신제품
 개발



문의 | 02)747-3500

시청역

8번출구 20m



‘AK&OO의 변신술’... 지역특화형 쇼핑몰 먹혔다



AK&홍대

젊은 세대·외국인 맞춤형 MD 선별

AK&기흥

거주민 특화 쇼핑몰... 주민 비율 ↑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AK플라자가 미래 성장동력인 'NSC형 쇼핑몰'로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

NSC(상권 특화형 쇼핑센터)형 쇼핑몰은 상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만 특화된 브랜드와 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AK&홍대'와 'AK&기흥'이 해당한다.

◆상권에 특화된 MD 구성, 매출로 이어져

NSC형 쇼핑몰 1호점인 'AK&홍대'가 홍대 상권의 특성에 맞게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게만 특화된 MD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서비스했다면, 'AK&기흥'은 기흥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 부모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 고객에 특화된 쇼핑몰로 꾸며졌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AK&홍대'가 위치한 동교동 삼거리 주변 상권의 유통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평일 점심



AK& 홍대 외관.

장사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

'AK&홍대'의 평일 평균 방문객 수는 2500명, 주말 평균 45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간 40만 명 이상이 'AK&홍대'를 다녀갔다.

특히, 'AK&홍대'와 같은 애경타워에서 운영 중인 '홀리에이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몰 구매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현재(1월 16일)까지 'AK&홍대' 전체 매출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9%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문을 연 'AK&기흥' 역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오픈 후 한 달간 6만명 이상이 쇼핑몰을 이용했다. 기흥역이 위치한 기흥구 구갈동 인구는 총 3만8000명으로 구갈동 주민들이 1인당 2번씩 다녀간 셈이다.

쇼핑몰 회원가입에서도 기흥구 거주민



AK&기흥 외관.

에 특화된 쇼핑몰이라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모세대인 35~44세 연령대가 회원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쇼핑몰 소재지인 구갈동 주민의 가입비율은 60%를 차지한다.

'AK&기흥'의 한 달간 매출은 목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했다. 입점 브랜드 총 85개 중 64개 브랜드만 먼저 오픈해 영업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의미있는 수치라는 분석이다.

오는 25일 이후 스과오, 서점, 무인양품, 패밀리 테마파크 등 나머지 브랜드가 순차적 오픈을 완료하고 나면 방문객과 매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AK&, 2022년까지 8개 목표

AK플라자는 NSC형 쇼핑몰 'AK&홍대', 'AK&기흥'에 이어 오는 3월 'AK&세종', 2022년 상반기 'AK TOWN

안산' 등 2곳의 쇼핑몰 오픈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는 4개의 쇼핑몰을 더해 총 8개의 쇼핑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오픈 예정인 쇼핑몰들도 모두 상권 특화형으로, 면적 규모와 상권 콘셉트에 따라 'AK&'와 'AK TOWN'으로 나뉜다.

'AK&홍대'와 'AK&기흥' 두 쇼핑몰의 콘셉트가 그 상권에 맞게 차별화 된 것처럼 'AK&세종'은 세종시 상권에 맞추고, 'AK TOWN 안산'은 안산 거주민의 니즈를 반영해 쇼핑몰 규모와 브랜드 구성 및 마케팅 방향을 정해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AK&세종'은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 30~40대 젊은 공무원 가족들을 위한 중대형 서점, 엄마들의 커뮤니티공간, 라이프스타일,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공간, 키즈, SPA 브랜드로 구성된다.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될 안산 사동의

'AK TOWN 안산'은 40~50대 연령층의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인 만큼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형 쇼핑공간으로 구성된다. 극장, 라이프스타일, 서점, 키즈, 가전, 홈퍼니싱 등의 브랜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K플라자 김진태 대표이사는 "NSC형 쇼핑몰은 AK플라자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쇼핑몰 점포별 콘셉트에 맞춰 그 상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쇼핑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역 입찰 여부는?

한편, 올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영업 종료로 앞둔 상황에 AK플라자 구로점이 8월 말 철수를 결정해 애경의 입찰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AK플라자가 민자역사와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구로점의 대안으로 영등포역점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AK플라자 측은 "성장성이 높은 NSC형 쇼핑몰인 'AK&'에 집중할 계획이며, 영등포역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이야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월 말 영등포역의 새 주인을 찾는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 낙찰제다.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케이카

신입 차량평가사 공개채용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기업 K Car는 2019년 상반기 차량평가사를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K Car 차량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중고차 성능 및 상태를 진단, 가치를 평가한 후 가격을 산정해 차량을 매입하거나 전국 직영점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담당한다.

차량평가사는 소비자의 중고차 거래 과정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K Car만의 차별화된 직무로, 학력, 전공,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여기에 자동차 관련 각종 자격증 및 자동차 매매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으면 우대 채용한다.

신입 차량평가사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입사하면 약 2주에 걸쳐 중고차 사업 관련 법규 및 현황, 자동차 공학, 중고차 진단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관련 직무의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

이번 K Car 차량평가사 공개채용 지원 기간은 1월 27일까지로, K Car 채용 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통합면접 단계를 걸쳐 선발되며 최종 합격자는 2월 13일 발표된다.

/양성운 기자 ysw@

“990삼겹살·990전복”... 이마트, 파격 ‘국민가격’ 흥행

신규고객 17만명 이상 유치
성공적 집객 효과 거둬

이마트가 올해 첫 선을 보인 '국민가격' 프로젝트가 제대로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국민가격은 '이마트가 국민의 가계살림에 힘이 되도록 생활 필수품 가격을 내리는 프로젝트'로,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할인이 핵심이다.

앞서 이마트는 '990삼겹살·목심', '990전복', '계란' 등 가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파괴력 있는 1차 국민가격 상품을 선보이고 연초부터 흥행에 성공했다.

이마트는 첫 국민가격 상품 흥행 바탕



을 이어받아 17일부터 23일 까지 일주간 몸값고공행진 중인 닭고기를 비롯해 쌀과 조개 등 국민 가격 2차 상품을 선보인다.

우선, 두 마리 생닭을 신세계 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기존 가격보다 40% 할인한 4380원~6960원에 판매한다. 마리당 최저 2190원에 선보이는 셈이다.

이마트는 닭고기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육류이지만 최근 혹한의 여파

로 생닭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인의 주식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쌀도 국민가격 상품으로 선정했다.

연간 쌀 평균 도매가격(20kg, 상품)은 2017년 3만3569원, 2018년 4만5412원에 이어 올해 평균 4만9389원(1월16일 기준)까지 뛰며 쌀 역시 시세는 오름세이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18년 헛곡 수매 시기부터 의성군과 사전 기획을 통해 '바른고을 의성진(眞)쌀 10kg'을 기존 대비 25% 가량 가격을 낮춰 2만3900원에 국민가격 상품으로 준비했다. 평소 대비 2배 이상 할인 폭을 키워 최근 1년 중 가장 큰 할인 폭이다.

이 밖에도 제철을 맞아 맛이 좋은 조개류를 모아 고객이 봉투에 골라담을 수 있는 '짬조개골라담기(봉)'과 간마늘(1kg×1봉)도 4980원에 국민가격 상품으로 준비했다.

가리비, 홍합, 석화, 피조개 4종을 고객 취향에 따라 봉지에 골라 담을 수 있어 단품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평균 40% 가량 저렴하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앞세운 국민가격 상품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신규 고객 유입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한 후 "앞으로도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춘 행사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터키 인조대리석 업체 ‘벨렌코’ 지분 인수

롯데케미칼, 72.5% 지분 인수
고급 인테리어 소재 시장 교두보

롯데케미칼의 핵심 자회사 롯데첨단소재는 터키의 엔지니어드스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벨렌코(Belenco)사의 지분 72.5%를 인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벨렌코(Belenco)사는 에게해 인근 터키 3대 도시인 이즈미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마니사(Manisa) OIZ공업단지(터키내 3번째 규모의 공업단지)에 위치한다. 이즈미(Izmir)항 및 천연석 광산에 근접, 생산 및 물류 효율성이 탁월하며 2개 라인 23만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

고 있다. 롯데첨단소재는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등 급성장하고 있는 선진국 고급 인테리어 소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첨단소재와 벨렌코 생산기지의 라인별 생산 전문화로 다양한 제품을 갖췄다.

국내 여수공장에 9만대의 엔지니어드스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첨단소재는 벨렌코사 인수 후 추가 설비투자를 통해 글로벌 TOP5업체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룹 계열사인 건설, 호텔 등에 최고급 실내의 건축자재를 제공하는 등 계열사 간 시너지도 도모할 방침이다.



터키 벨렌코(Belenco)사 공장 공정 모습.

/롯데케미칼

앞서 롯데그룹은 화학부문의 지속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범용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인 스페셜티 사업부문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터키 벨렌코 인수는 이같은 성장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올해 첫 결과물이라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롯데 화학부문은 스페셜티 화학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소상공인 위한 홍남기의 약속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 이틀연속 경제현장 행보
“소상공인정책 사각지대 없어질 것”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을 마련,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가시켜 관련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정책실도 강화해 정책 역량을 높인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의견도 보다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엔 경제 4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투자, 노동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틀 연속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이날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한 영역으로 다뤄져왔다면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

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었다.

이날도 홍 부총리에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앞줄 왼쪽 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관련 현안이 소홀히 취급돼 왔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하고 소상공인들 역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의 폭도 넓혀나간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분야를 임기응변식 지원대상으로 여기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연합회

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대변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과정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자위 계류법안 700건... 갈길 먼 국회

중기 관련 85건, 벤처 관련 11건

2020년 21대 국회때 ‘자동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첫 경내행사에 중소·벤처기업인을 초청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가 갈 길은 여전히 먼 실정이다.

17일 본지의 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7건에 이른다. 이중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85건, 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산자위의 가장 해묵은 법안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향토기업이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정보·인력 수급 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향토기업을 중소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제나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창



지난 14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업 후 폐업·파산한 사람이 취직하려는 경우 창업 사실이나 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6년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중기부 장관 권한으로 ‘사회공헌형 창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개월 만에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이후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대표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 이름으로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자, 질권자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 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떠돌고 있다.

산자위를 해매고 있는 700건 넘는 법안은 사실상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못 가는 이유는 ‘중복’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법안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시급한 현안 등 충분히 필요한 법안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

신선농산물 수출 12.8억 달러 ‘역대최고’

농식품부, 전년비 16.6%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2017년보다 16.6% 증가한 12억 8000만 달러(약 1조43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 전체 수출 역시 전년보

다 1억 달러 늘어난 69억3000만 달러(약 7조7740억원)로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선농산물 중 배 수출은 베트남·미국 시장 수출에 힘입어 21.3%나 성장해 처음으로 8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포도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 61.3% 증가한 1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딸기 4800만 달러(9.2% 상승), 토마토 1680만 달러(20.5% 상승), 인

삼류 1억8770만 달러(18.5% 상승) 등 주요 품목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껌(단백) 수출액이 크게 줄었지만, 라면·음료·조제분유 등 다른 주요 품목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했고, 음료와 조제분유는 각각 20.6%, 27.6% 수출이 증가했다. 껌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담배 죄악세 100%를 부과하면서 수출액이 3억3000만 달러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기업호감지수 ‘53.9점’... 전년비 소폭 하락

대한상의, 2018 CFI 조사 결과

국민들은 기업을 여전히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53.9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CFI는 50점을 넘으면 중립적이라는 의미다. 75점 이상은 긍정적, 50점 미만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국내 CFI는 2016년 47.6점에서 2017년 55.8점으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중립적 평가는 유지됐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제 발전 기여(42.4%)였다. 일자리 창출(36.9%), 국가 브랜드 향상(12.5%)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평가는 준법·윤리경영 미흡(44.4%)에서 많이 나왔다. 후진적 기업문화(20.5%), 일자리 창출 부족(19.0%), 사회공헌 활동 미흡(7.8%), 국가 경제 기여 미진(5.9%) 등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9점으로 부정적이었다. 전년보다 3.2점이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기대에 못미쳤고, 일부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도 전년보다 1점 떨어져 58.4점을 받았다.

부분별로는 사회적 공헌(46.9점)과 규범·윤리 준수(44.2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기업의 경제적 기여 점수는 62.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전년보다는 2.5점 떨어졌다.

/김재용 기자 juk@

<채당금 제도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	
	일반채당금	지원한도	1,800만원	2,100만원
소액채당금	지원대상	퇴직자	퇴직자+저소득 재직자	
	지원한도	400만원	1,000만원	
	처리기간	7개월	2개월	

노동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한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규모가 큰 편이다.

정부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채당금 지급 ▲소액채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현재 400만 원인 소액채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채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기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채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채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채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대학도 차별화 열풍

학문의 상아탑이던 대학들이 상위 1% 전문인 양성과 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진로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대학가에 차별화 열풍이 불고 있다. 동국대는 외교부와 손잡고 법학과 내에 영사 전문 인재를 배출하는 '영사법무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모험심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주력해 온 이화여대는 대학의 취·창업 랜드마크가 될 '내일 라운지'를 개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자주)

**“韓 실리콘밸리 만든다”
취업·창업 원스톱으로**

관학 힘 합쳐 ‘영사전문인력’ 키운다

동국대학교

외교부와 교육·양성 협약
교과목 개설·교재 집필 등
‘영사법무학과’ 창설 계획

동국대학교가 외교부와 손잡고 영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법과대학 내에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과 교재 집필 등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동국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6일 오후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동국대는 이를 위해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원활한 운영 ▲신규 교원 발품 및 임용 ▲교재 집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동국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정보제공 및 특강 등 협력을 제공할 계획



한태식 동국대 총장(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영사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사 관련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영사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관학협약 모델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동국대는 기존 법학 영역에서 특화된 영사법무학 분야까지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앞서 강경화 장관은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영사 전문 인력과 동국대가 학과 과정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인력이 아주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해 협업하기로 했다"며 "동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한태식 동국대 총장과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화여자대학교

진로 설계공간 '내일라운지' 개소
1대1 컨설팅·소그룹 활동·세미나
안정적인 미래 생태계 구축 기대

이화여대가 취·창업 랜드마크 '내일 라운지'를 개소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 만들기에 나섰다.

내일 라운지의 내일은 '내일(Tomorrow)'과 '나의 일(My Job)'을 의미하며 이화여대의 취·창업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 공간을 상징한다. 내일 라운지에는 취·창업 부스와 카페, 컨설팅 공간 등을 갖추고 창의적 교육과 워크숍,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이 미래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17일 개소식에서 김혜숙 총장은 "기술 주도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식이 연결되고 융합돼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1886년 창립 이래 도전과 개혁, 개혁 정신을 소중히 여겨온 이화여대는 내일 라운지 오픈을 계기로 도전과 기회의 역사를 만들고, 나아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안정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비전을 펼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화여대 정문쪽 ECC 중앙에 위치한 내일 라운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내:일 박스', '내:일 카페', '내:일 컨설팅'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내:일 박스'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돼 취·창업 관련 예약현황과 정보를 실시간



이화여대 학생들이 '내일 라운지'에서 진로지도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확인할 수 있고, 큐브 형태의 취업부스와 오픈 테이블이 마련돼 기업설명회, 창업멘토링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내:일 카페'는 모임과 행사,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일 컨설팅' 공간은 창업 상시상담 안내데스크가 설치되는 등 학생들의 1대1 취업 컨설팅과 소그룹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취·창업 진로지원 원스톱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화여대는 앞서 2016년 학교 앞 쇠락한 상가 점포들을 임대해 학생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사업을 진행했고, '기업가정신 연계전공과목'을 다수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모험심과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에 힘써왔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해 현재 약 33개 예비창업기업의 창업보육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내일 라운지 개소가 여성창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세종대-국민대

‘KSC 2018 라인·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세종대학교는 정보통신공학과 최경식(11학년), 컴퓨터공학과 송치오(12학년) 학생이 'KSC 2018 라인·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라인과 한국정보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라인의 블록체인 메인넷인 링크체인(LINK Chain)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디앱(dApp) 관련 아이디어와 구현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세종대 두 학생은 국민대 장태진 학생과 ABA팀으로 구성해 출전했다. ABA 팀은 대부분의 기술 문서들이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술문서 번역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술문서 번역 플랫폼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장을 자동 분류해주는 참여형 번역 서비스이다.

삼육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체육학 과정’ 신설

삼육대는 평생교육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아 체육학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설 과목은 골프 I, 스포츠마사지,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인체생화학, 체육측정평가, 테니스 I, 트레일닝론 등 8개 과목이다.

'골프 I'은 골프의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기초기술을 습득하며, 실전경험을 통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등이 'KSC(Korea Software Conference) 2018 라인·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대학교

해 경기능력과 훈련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스포츠마사지'는 운동능력 향상과 스포츠 상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사지 테크닉을 익힌다.

수강신청은 내달 22일까지 삼육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규 1학기 수업은 3월 3일 ~ 6월 22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열람실서 맞춤형학습공간으로... 대학도서관의 진화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확정
연구자에 DB 사용 등 학술 서비스도**

주로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학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년~2023년)'을 확정·발표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6년~2018년 1차 종합계획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자료 확충에 중점을 뒀고,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25명 채용

서울시교육청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오)은 2019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분야별 인원은 사서 1명, 시간제돌



협업 공간으로 변신한 대학 도서관. /교육부

우선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 도서를 신속 구비하고, 전공별 특화된 정보추천서비스(큐레이션)가 제공된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토록 했다.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국가와 대학이 3대 7 비율로 투자·구매하고, 구매하지 않은 대학도 일정시간(16시~09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법전담사 13명, 영양사 1명, 조리원 7명, 교육실무사(교무, 과학실험, 전산 통합직종) 3명이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학력, 성별, 지역 제한이 없지만, 사서와 영양사,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다. 합격자는 3개월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

친 후 정년(만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3~24일 진행되고, 1차 서류심사는 30일, 2차 면접시험은 내달 12일, 최종 합격자는 14일 발표된다.

채용 관련 문은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교보생명, 청소년 리더십 캠프 체.인.지 개최
교보생명이 17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2019 교보 청소년 리더십 캠프 '체.인.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된 학교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를 모형으로 제작·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중2부터 고2까지 전국 각지의 청소년 40명이 참가했다. /교보생명



NS홈쇼핑,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NS홈쇼핑은 '201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홈쇼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홈쇼핑 부문 대상을 수상한 NS 홈쇼핑은 까다로운 품질관리로 원료 입고에서 제조까지 생산 시설과 직원 교육, 위생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고객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바를 인정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NS홈쇼핑



화이자제약, 저소득 어르신들에 6500만원 후원금
한국화이자제약은 '헬시 에이징(Healthy Ageing)'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저소득 노인 공동체의 건강 증진 후원금 약 6500만원을 최근 한국헬프에이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2016년 한국헬프에이지와 공동 캠페인을 통해 매월 저소득 노인 공동체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저소득 노인 공동체의 건강 증진 후원금을 포함해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억9600여만원을 지원했다. /화이자제약

오비맥주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 선포

오비맥주가 새로운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을 선포하고 국내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 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새 사회공헌 브랜드를 앞세워 ▲건전음주 ▲환경경영 ▲지역나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일성 있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 'OB좋은세상' 브랜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한다(Bring People Together)



'er For a Better World'는 기업 비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브랜드 로고는 맥주의 핵심 원료이자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과 오비맥주와의 따뜻한 동행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인웅 기자 parki7854@



배스킨라빈스 '서울영상광고제 2018' 3관왕 수상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는 '서울영상광고제 2018'에서 작품상 부문 금·은·동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상과 동상을 수상한 작품은 지난해 9월에 선보인 '추석선물세트 편'이다. 4월에 공개한 '아쿠르트 샤페트 편'은 작품상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배스킨라빈스



오성환 변호사의
기특한 칼럼

특허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령, 자신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니 '통상실시권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허권에 있어 '실시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나,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 지역에서 통상실시권을 중복해서 설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발생 후에도 특허권자는 동일한 지역에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명의 통상실시권자 모두는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실시에 대해서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다.

기존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 이후 특허권자가 새로운 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독점, 배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통상실시권자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통상실시권이 등록을 했다면, 등록 후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자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용실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적 실시를 하지 못하므로,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가 먼저 등록을 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위성호 신한은행장, 베트남서 대출상품 개발 맞손

SNS 기업 잘로와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잘로(Zalo)와 디지털 특화 대출상품 '포켓론'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브영 광 카이(Vuong Quang Khai) 잘로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켓론 공동 개발 업무협약은 양사가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다. 신한은행과 잘로는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위해 작년 6월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1억 명에 달하는 잘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동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오른쪽)과 브영 광 카이(Vuong Quang Khai) 잘로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6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잘로(Zalo) 본사에서 디지털 특화 대출상품 '포켓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켓론은 신한베트남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와 잘로의 모바일 플랫폼이 결합된 모바일 간편 대출상품이다.

포켓론 대상 고객은 잘로 앱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조회한 후 바로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한

베트남은행은 포켓론 신청 고객을 직접 방문해 대출 서류를 접수하며, 자격심사 결과, 대출 승인·거절 등 이후 진행되는 각 단계에 대해 잘로 메신저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김종춘 부사장 김상묵 본부장

코트라 김종춘 부사장 임명

코트라(KOTRA)가 김종춘 부사장겸 경영지원본부장(이하 부사장)과 김상묵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종춘 신임 부사장은 지난 1988년 KOTRA 입사 이후 리스본부역관장, 경영혁신팀장, 부다페스트무역관장, 홍보실장, 워싱턴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겸 뉴욕무역관장, 주력산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8년 8월 상임이사에 선임돼 현재 경제통상협력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상묵 신임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1988년 KOTRA 입사 이후 멜버른무역관장, 취리히무역관장, 브랜드·기술사업처장, 팔라뮴푸르무역관장, 글로벌파트너링실장, 서비스산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윤순희 △주한미군기지원지원단 부단장 정영주
- ◆재외동포재단 △감사실장 이훈용 △연구소통부장 김복섭 △한상사업부장 한광수 △기획실장 겸 서울사무소장 박종환 △차세대사업부장 조형재

- ◆국립공원공단 ◇본부장급 전보 △혁신지원본부장 김중완 △지리산국립공원본부장 나공주 ◇본사 차·실장급 전보 △행정처장 김두한 △시설처장 이재원 △홍보실장 손영임 △상생협력실장 허영범 ◇급 승진 및 전보 △탐방복지처장 문영근 △재난안전처장 양해승 ◇2급 승진 및 전보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이기석 △행정처 노사협력부장 박경근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신정태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 이진철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박영준 ◇본사 부장급 전보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장 남태환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홍성광 △시설처 공원시설부장 임철진 △국립공원탐방조사추진기획단장 오민석 △기획예산처 일차리출장부장 안길선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장방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김현교 △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안동순 △감사실 감사기획부장 유상형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김민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철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덕구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경출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이용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정용상 △북한산생태탐방원장 김영래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신

- 창호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인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규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이천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최병기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주홍준 △종복원기술원장 강재구 △국립공원연구원장 오장근 △지리산생태탐방원장 황규태 △설악산생태탐방원장 한진섭
-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청장실 비서관 이기현 △소평물기획과장 이형식

부음

-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씨 별세, 이현주씨 남편상, 최의연·호연씨 부친상=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일 오전 7시, 장지 북한강공원, 02-3410-6917
- ▲최춘희씨 별세, 장운중(포스코경영연구원장)·태종·영화·영숙씨 모친상, 김일선씨 장모상=17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3010-2263
- ▲백옥순씨 별세, 김정열(자영업)·김복만(금융감독원 부국장겸사역)·김봉애(대방교회 권사)·김순애(전 KT&G 보성지점장)씨 모친상, 김석중(자영업)씨 장모상=16일, 광주 남문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62-675-5000
- ▲김다선씨 별세, 남상덕(명광기업 대표이사)·상식(동광기업 대표이사)·미숙(한겨레문화센터 강사)씨 모친상, 손근균(국제신문 서울본부 경제부장)씨 장모상=16일 오후, 경남 양산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55-366-4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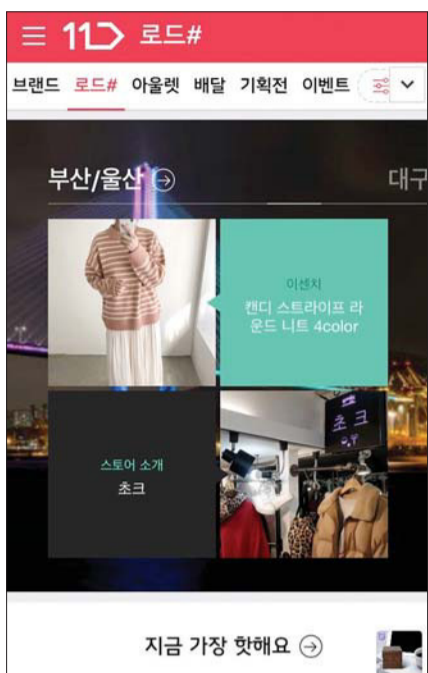
11번가 '로드샵', 1년 만에 입점 점포·거래액 2배 '경증'

전국 인기 옷가게 800개 입점 모바일 친화적 사용환경 구축 양적·실적 성장 모두 거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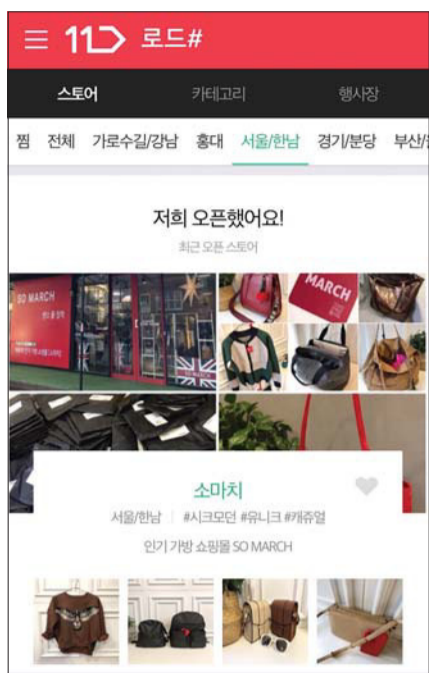
11번가가 지난해 1월 말 선보인 모바일 '로드#(샵)' 서비스가 론칭 1년 만에 입점 상점 수가 2배 늘어나고 거래액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으로 옷과 패션소품을 구입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모바일로 패션 쇼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행하는 옷가게 패션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둘러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력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11번가의 '로드샵'은 전국 유행하는 옷가게 패션을 모바일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주요 상권인 ▲가로수길/강남, ▲홍대/한남, ▲경기/분당, ▲부산/울산, ▲대구/기타지역 등의 옷가게 상품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들



11번가 로드샵.



입점이 가능하다.

11번가는 짧은 감각을 지닌 우수 판매

러보고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패션·잡화 판매자라면 누구나

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을 알리고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각자 취향대로 매장을 열고 홍보할 수 있는 미니몰인 '스토어' 기능 제공 ▲로드샵 판매자 전용 블로그를 통해 테마별 기획전 상시 제안 ▲상품등록부터 반품, 환불 현황 등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셀러 오피스 시스템 구축 등 모바일 친화적인 사용환경에 집중했다.

그 결과 오픈 당시 400여 개였던 상점 수는 1년 만에 2배 늘어난 800여 개, 취급 상품 수도 전체 9만 여 개에 달하며, 전체 거래액은 지난해 1월 대비 12월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판매자 증가에 더해 각 지역별 유명 판매자까지 입점 하는 등 양적·실적 성장 모두 거뒀다.

패션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로드샵이 많은 '부산권' 지역의 상점들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지역별 판매 비중으로는 '부산/울산'이 전체의 60%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대구' (13%), '서울'

(11%) 순으로 전국 기반으로 폭 넓은 수요가 일어났다.

'로드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고객은 '30대 여성' (46.1%)이 1위, 뒤이어 '40대 여성' (19.9%), '20대 여성' (17.7%) 순으로 3040대 여성고객들의 구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는 3040대 여성들이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화면으로 전국 상점의 쇼윈도를 보고 쇼핑할 수 있어 3040대 여성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11번가 이현주 트렌드 팀장은 "모바일로 패션쇼핑을 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향후 '로드샵' 서비스는 남성 패션상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판매자 영입을 확대해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규모 로드샵 판매자들도 11번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기회를 고루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이키 클리어런스' 매장 국내 최초 상륙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서 오픈 재고 할인 매장으로 최대 90% 할인

국내 유일의 '나이키 클리어런스 스토어'가 오는 18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에 오픈한다. 유통업계 최초 매장이자 국내 유일한 매장인 '나이키 클리어런스 스토어'의 규모는 992㎡ (300평)이며 나이키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40%에서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롯데는 지난 12월 6일에 오픈한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 아시아 최대인 2000㎡(600평) 규모의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 매장을 오픈해 오픈 한 달만에 약 40억 매출을 기록했다.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의 경우, 1, 2년차의 재고를 평균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 반해, '클리어런스 스토어'의 경우 최대 3, 4년차까지의 최종 재고를 판매하며 평균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번 클리어런스 스토어의 경우, 나이키의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재고형 매장이다. 소위 말하는 득템, 보물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나이키 팩토리.

/롯데쇼핑

찾기가 가능하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는 유명한 나이키의 재고 할인 매장인 클리어런스 스토어는 기존 아울렛의 나이키 매장보다도 20~30% 가량 더 할인된 가격에 나이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던, 우먼스, 키즈 등 나이키의 모든 라인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어 쇼핑 편의성도 매우 높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나이키 클리어런스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오픈일인 18일부

터 20일까지 3일 동안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 품목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매장을 유치한 롯데백화점 유다영 스포츠 치프 바이어는 "국내에 나이키 매니 아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50만명을 넘어서고, 한정판 출시의 경우 고객들이 밤새 줄을 서서 매장 앞에 기다리는 등 브랜드 입지도와 인기가 커짐에 따라 롯데는 나이키와 손잡고 최초, 단독 매장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주 52시간, 편의점 '피크타임' 바꿨다

오후 5~7시 이용빈도 13.5%↑ 상권별 판매인기 상품도 달라져

주 52시간 근무제가 편의점 피크타임을 바꿨다. 상권별 인기 상품도 달라졌다.

17일 편의점 GS25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7~12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40대 고객의 오후 5~7시 사이 이용 빈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피스 상권 내 변화가 뚜렷하다. 동시간대 오피스 상권 내 매장의 3040대 고객은 17.8% 늘었는데, 타 상권은 10.2% 증가했다. 저녁 피크타임 이용 시간대도 오후 6~8시에서 한 시간 가량 앞당겨지는 추세다.

상권 별로 잘 팔리는 상품도 바뀌었다. GS25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김밥, 디저트, 샐러드, 과일 등 즉식 취식할 수 있는 간편 식품류의 매출은 2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오피스 상권 내 매출은 28.3%로 증가폭이 더 컸다.

이와 관련해 GS25 측은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자기개발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맥주와 소주는 주거 상권에서 매출 증가폭이 더욱 컸다. GS25의 맥주, 소주 매출은 6.3% 증가했는데, 오피스 상권 내에선 1.8%, 주거 상권에선 10.4% 늘었다. 맥주, 소주보다 득한 술로 여겨지는 양주



30대 남성 고객이 오피스 상권의 GS25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의 경우, 전체 매출이 2.7% 감소했다.

GS25 측은 "최근 휴파티, 홈술족(집에서 간단히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상권별, 주종별 매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GS25는 이번 분석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상권 별로 세심한 영업 전략을 수립해 대응함으로써 편의점 업계 매출 1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혜동 GS리테일 데이터경영팀 차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만3000여 개의 소매점 오프라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 고객에게는 더 큰 만족을 드리기를 위해 소매 트렌드에 민감히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골든블루, 세련미 담은 고품격 위스키 셀 선물세트 출시

골든블루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위스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든블루 위스키 선물세트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20년 서밋' 3종이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선물세트는 450ml 위스키 1병과 언더락잔 2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는 450ml 위스키 1병과 힌플라스크 1개, 언더락잔 1잔으로 구성됐다. '골든블루 20년 서밋' 선물세트는 명절을 맞아 특별히 제작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하드케이스에 450ml 위스키 1병이 들어가 있다.

'골든블루'는 100%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으로 블렌딩된 뛰어난 품질과 부드러운 저도수로 까다로운 국내 위스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2017년에



골든블루 위스키 선물세트.

/골든블루

국내 정통 위스키 시장 1위에 오르고 각종 세계 주류품평회에서 메달을 거머쥔 대한민국 대표 위스키 브랜드다.

2009년에 출시된 '골든블루'는 국내에 처음으로 저도수 위스키 시장의 문을 연 선두주자이자 저도수 문화를 확대시킨 주역이다. 지난해 1~12월 기준으로, 40도

미만 저도수 위스키가 40도 이상 위스키보다 많이 팔려 전체 위스키 시장에서 51.6%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골든블루'는 출시 이후 저도수 위스키 시장에서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롯데칠성, 국화의 향긋함 담은 '목단비 국화차'

연일 기승 부리는 미세먼지에 목 건강·차음료 관심 높아져

롯데칠성음료가 국화의 향긋함과 박하, 페퍼민트의 상쾌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차음료 '목단비 국화차'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목단비 국화차는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목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차음료 수요도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 '내 목을 촉촉한 단비처럼 시원하게'라는 콘셉트와 함께 출시된 제품



이다. 이 제품은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국화와 도라지, 생강, 모과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상쾌한 박하와 페퍼민트도 들어 있어 먼지가 많은 실내의 활동 시 마시면 목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설탕을 넣지 않은 0kcal의 무당차 음료로 물 대용으로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다.

/박인용 기자

“제약산업, 국가 지원 뒷받침때 2035년 수출 100조 달성 가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신년 간담회

신약기술 수출성과 눈앞
핵심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정부 적극적 지원 표명해야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1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이 지닌 국부창출의 잠재력이 1400조원 규모의 세계 제약시장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약산업이 국가주력산업임을 선언하고,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에서 ‘제약산업, 대한민국의 미래다’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원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화산폭발이 터지기 직전이다. 화산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주변의 작은 화산들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신약기술 수출성과 국내 제약산업이 대폭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의 대도약

실제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정부의 지원은 8%에 불과하다”며 “국산 신약에 대한 낮은 성과보상 체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산업 현장의 체감도는 냉골”이라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협회가 100개 제약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개발 예정 파이프라인이 953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R&D 예산 중 40%를 제약 부문에 투자하는 벨기에, 연간 1000개 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비용 50%를 지원하는 스위스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원 회장은 “정부의 지원과 제약산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노력 병행이 병행된다면 2025년 글로벌 매출 1조 국산 신약 탄생, 2030년 매출 10조 국내 제약사 출현, 2035년 의약품 수출 100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미래형 신산업 중 하나로 제약산업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약산업 지원을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확실한 의지표명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계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동안 30개의 국산 신약을 탄생시키는 등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비상상황실 운영·인력 증원·본사 직원 투입 택배업계 “설날 만반의 준비”

CJ대한통운

전국 터미널에 ‘휠소터’ 설치
한진

특별수송차량 추가 운영

롯데글로벌로지스

콜센터·현장 인력 50% ↑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서울북한문물터미널에서 택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택배업계가 2월5일 설이 바짝 다가오면서 ‘배송전쟁’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업계 따르면 올해 설 명절 택배 물동량은 평소보다 15~2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오픈마켓 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업계의 대대적인 설 이벤트 역시 택배량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특히 업계는 하루 최대 약 200만 박스가 몰릴 것으로 관측되는 오는 28일이 이번 설 배송시간 중 가장 분주한 하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설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돌입해 2월 15일까지 약 5주간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한진은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1일부터 2월8일까지를 각각 특별 배송기간으로 정했다.

업계는 올해가 기해년 황금돼지해여서 설을 맞아 돼지고기 선물세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명절선물도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여행량이 늘어나고 수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굴비, 갈치 등의 선물세트 배송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개인 택배 접수는 18일까지만 받는다. 이후엔 2월18일부터 다시 접수한다. 보낸 택배나 받을 택배가 있는 고객들은 CJ대한통운 택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배 접수 또는 상품 구매시 받은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CJ대한통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전국 물동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외 다른 택배사의 물품도 배송 추적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현재까지 전국 156곳의 택배 터미널에 설치한 ‘휠소터(Wheel Sorter)’가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운영하는 178개 터미널 가운데 88%에 휠소터가 설치돼 있다. 휠소터는 소형 바퀴(휠)를 통해 택배 상 물세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명절선물도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여행량이 늘어나고 수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굴비, 갈치 등의 선물세트 배송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본사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전국의 물동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배송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정식 배송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콜센터 상담원 등 필요 인력도 20%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한진도 차량 확보 및 분류인력 증원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수송차량 추가 운영

뿐만 아니라 고객 배송에 앞서 터미널 간 상품을 이동하는 간선차량이 제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정시성도 강화키로 했다.

본사 직원도 택배현장에 투입해 분류작업, 집배송 및 운송장 등록업무 등도 지원한다.

한진 관계자는 “명절 선물 배송에 인력 및 장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택배의 고객센터 및 인터넷 예약 접수는 특별배송기간에 이용이 제한된다”면서 “하지만 이마트24, 홈플러스365+, IGA마트, 새마을금고 등 취급점을 통한 개인택배 접수는 28일 14시(취급점별 마감시간 상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1000여 집배점에 대한 긴급 배송지원을 위해 1500여 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본사 직원 3백여 명도 현장 지원에 나선다. 물류센터 분류인력, 콜센터 상담원도 각각 50% 늘리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택배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주문해야 한다”며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할 때에는 판매처에서 공지한 배송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연락처를 모두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키오스크로 인건비 고민 날린다

프랜차이즈업계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증가세
고객편의 증대·운영효율성 ↑



롯데리아 키오스크 /롯데리아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 화두는 인건비 상승이었다.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각도로 인건비 절약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 인상됐다.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서 ‘인건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키오스크 도입을 검토하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맥도날드에서도 키오스크 도입 매장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 키오스크를 도입한 맥도날드는 현재는 약 420개 매장 가운데 약 250곳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

신경을 받기 시작했다. 생과일주스 전문점 주씨는 2017년 말부터 가맹점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설치 매장 수는 50여개로 현재 10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주씨 측은 올해 키오스크 설치 매장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약 100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맘스터치는 전국 1130여개 가맹점 가운데 2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맘스터치는 키오스크가 고객 편의 증대와 가맹점주들의 운영 효율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타진한 후 점차적으로 도입을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테이크 전문점 소데스네는 매장에 테이블 오더 시스템과 더불어 카카오페이, 위챗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인용 기자

이다. 맥도날드 측은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매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는 전체 1350개 매장 가운데 82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설치 매장 수는 2016년 430여개에서 2017년 660여개, 2018년 820여개를 넘겼다. 롯데리아는 2014년 직영점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를 시험 도입한 이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치

獨 ‘발레아’, 롯데마트·롭스서 만난다

롯데 주요 유통계열사서 판매

롯데마트와 롭스가 독일 드럭스토어 1위 업체인 dm사의 헬스 &뷰티 전문 PB 브랜드 ‘발레아

(Balea)를 본격 론칭한다.

이번에 론칭하는 ‘발레아’는 핸드크림과 풋크림, 앰플 등 기초화장품 라인을 중심으로 탁월한 품질과 가성비로 글로벌 브랜드 ‘니

베아’와 더불어 독일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인정받는 브랜드다.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마트’와 ‘빅마켓’, ‘롭스’는 물론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 등 롯데그룹 주요 유통계열사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dm사의 PB를 만나 수 있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으뜸50안경, 연신내점 신규 오픈기념 특가 세일

누진다초점렌즈 70% 할인 등

으뜸50안경이 연신내점 신규 오픈을 기념해 특가 세일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으뜸50안경은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를 60~90%에 선보인다. 또한, 한 달간 효도 선물 누진 다초점렌즈를 60~70% 특가로 판매한다.

자외선 차단용 및 선글라스 대용으로 인기가 높은 아도모스 벨런스 1.50 제품은 12만9000원에 판매하며, 수입브랜드 누진 다초점렌즈 아지오 1.50은 9만9000원에 선보인다. 청광차단 안경렌즈



으뜸50안경 연신내점. /으뜸50안경

선보이고, 체험단을 함께 모집한다.

으뜸50안경은 공장직거래 시스템을 통한 대량구매로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다.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거품을 없애면서 안경은 ‘고가’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으뜸50안경 측은 “거품 간경 시장에서 판매가를 낮추고, 안경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최근 젊은층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엄청난 할인율을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50중굴절은 1만원, 고굴절비구면은 2만2000원, 1.67 초고굴절비구면은 2만9000원이다.

또한, 한 달용 컬러 콘택트렌즈 사인팝은 1만5000원에 1+1으로

LG화학, '젊은 꿈 키우는 화학캠프' 개최

주요사업장 인근 중학생 400여명 초청

LG화학은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여수, 대전 등 주요사업장 인근 400여명의 중학생들을 초청해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화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미래 과학 인재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약 7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지난 16일 시작된 새해 첫 캠프는 영등포, 마곡, 파주 등 LG화학의 수도권 사업장 인근 중학생 100여명을 서울 올림픽파크텔로 초청해 2박 3일간 진행했다. 캠프는 '화학과 놀고, 화학을 꿈꾸자'를 주제로 ▲창의융합탐구 ▲ 기초과학탐구 ▲화학직업탐구 등 새롭게 개편된 다양한 화학실험 및 특강 등이 진행된다.



화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태양광 충전 램프를 만들고 있다.

/LG화학

다양한 화학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유익한 강의도 진행된다. 이번 캠프에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학생들에게 영상 제작 및 어플

리케이션 활용법 등에 대해서 강의해주는 '벨류 업그레이드 특강' 시간이 마련됐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재계에 손 내민 文정부



기자 수첩

김재웅
(산업부)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에 손을 내밀었다. 취임한지 1년 반여만이 다. 새해가 밝자마자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갖고 꾸준히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테다. 자동차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스스로 성장 엔진이라 칭했던 반도체 산업도 상승곡선에 힘이 꺾였다. 신산업 출항 시도는 격한 사회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취업률은 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다.

문 정부는 올해 경제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신년사에서 '경제'를 수없이 반복했고, 규제 혁신과 투자 지원을 언급했다. '타운홀 미팅' 등 재계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묵묵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경제계 의사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경제계는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약속이 말에서 그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당장 시행된 규제 개혁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일감몰아주기과 지배구조 개편 등 골치아픈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삼바 사태'와 '국정 농단' 등 정치 현안도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산업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도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문 정부를 취임 직후부터 적극 지원해왔다. 국내 투자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확대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방문 요청을 조건부로 승낙하며 압박을 좀처럼 풀지 않았다.

SK 최태원 회장은 4대 기업 총수 만행이 된 후 '화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에게 체크무늬 양말을 보여주고, 문 대통령에게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요구를 이어갔다.

문 정부도 화끈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해본다. IMF 외환위기를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이제는 확실한 지원과 규제 완화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juk@metroseoul.co.kr

SPC그룹 한부모가정 자녀에 4000만원 지원

SPC그룹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PC스퀘어에서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및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SPC그룹의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SPC Happy Share' 캠페인의 일환으로, '카카오 같이가치'에 사연을 소개하고 시민이 응원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건강 일정금액을

적립해 대신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SPC행복한재단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2018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정해 네 차례의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총 2만 5천여명이 네티즌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18가정에 총 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SPC그룹은 이날 'SPC스퀘어 라그릴리아' 열린 행사에 2018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18가정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4차 캠프



지난 16일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기부금 전달식'에서 SPC행복한재단 및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인의 대상 가족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박인용 기자 parkju7854@

오늘의 운세

1월 18일 (음 1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밀의 사람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6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72년생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8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49년생 가족과의 무관심이 부담스럽다. 61년생 내용보다 포장에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73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85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5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 62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 74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 양보. 86년생 조연도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나 먹힘.



51년생 토사구팽(虎死狗烹) 되더라도 속명이다. 6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7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87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52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다. 64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76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니 잠시 쉬어가지. 8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53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6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결과는 생각보다 약하다. 77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된다. 89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54년생 날새 텃밭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66년생 나비의 화려함이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다는 걸 명심. 78년생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는다. 90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더 낫다.



55년생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67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물려서라도 달래야 한다. 79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침묵해야 한다. 9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벌 언덕이 절실히 필요한 날.



56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피곤하게 한다. 68년생 어제 과음으로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80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92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57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9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즐거운 소식을 가져온다. 81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 93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58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70년생 어느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8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94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호랑이띠의 도움으로 성사.



59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 7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83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95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9	
		7						
3	1		6				4	
		6		8	4			
			2	7				6
					1	3		
8			9		5		3	
		5				9	1	
9				3				4

							4	
	1		6					3
2		5		8			1	
	3		7				2	1
		4					8	
5				6				
4			5	3				2
		7		2		9		
			1		4			7

스도쿠 정답								
7	9	5	8	1	2	3	4	6
8	1	6	9	2	3	5	7	4
2	3	4	5	7	6	1	9	8
3	2	1	9	7	6	8	5	4
9	5	8	6	4	2	3	7	1
1	6	7	4	8	5	9	2	3
5	7	2	3	6	9	8	1	4
4	2	3	1	7	9	6	5	8
6	8	9	2	4	1	7	5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누구를 탓하라

지난 13일은 음력12월 8일 성도재일(成道齋日)이었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불가에서는 석가세존이 6년의 설산 고행수도 후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라 하여 성도재일로 칭하며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이나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는 한 겨울이 아닌 남방의 여름이 시작하는 때라고 여겨지는 4월말이나 5월초를 '-vesakha)라 하여 성도재일로 여기고 있다. '베사카(vesakha)의 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베사카의 보름이라는 시기는 대략 5월 초이기 때문이다. 남방불교와 대승불교권에서 이처럼 성도재일에 대한 날짜의 정립이 다른 이유를 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북방불교로서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는 중국의 선가에서 송나라 때 12월 8일을 성도재일로 의견을 모아 성도회를 행한 전통을 받아들여 한국의 불가에서는 이 날을 성도재일로 기념하여 철야기도 등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북방이든 남방이든 석가탄신일 못지않게 성도재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날로 기리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남방 불교국가들은 부처님 탄신일과 성도재일이 근접한 관계로 범법자들의 사면조치까지 행할 정도로 경사스러운 날로 기린다. '성도'란 말 그대로 도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석가세존께서 깨달으신 진여(眞如)의 이치는 원래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봄으로써 존재의 실상 즉 만물과 현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생과 사를 뛰어 넘은 무생법인을 증득하셨다. 해탈이라 함은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열반이라 함은 번뇌의 불길기 꺼졌음을 말한다.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탐진치 삼독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가적 표현에 의하면 욕계를 의미한다. 욕계는 탐진치의 메카니즘으로 움직이는 세계다. 그러니 어찌 욕계 속에 살면서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진흙 속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어나듯 깨달음이란 세속의 혼탁함이 있기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27호

기해년엔 황금돼지 한 잔



이탈리아의 한 엔지니어가 가업을 이어받아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와인 산지로 이름난 토스카나 끼안티 지역에서다. 전통 품종인 산지오베제로 유명한 곳이지만 엔지니어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슈퍼투스칸 와인을 만들기 위해 국제 품종인 카버네 소비뇽을 심은 것. 슈퍼투스칸은 말 그대로 토스카나에서 만들어진 품질이 탁월한(super) 와인을 말한다.



(왼쪽부터) 캄포 디 사소 인솔리오 델 칭갈레, 카스텔로 디 퀘르체토 치날레, 사소레갈레 로쏘 마렘마 토스카나, 사소레갈레 베르멘티노.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첫 포도를 수확하려던 엔지니어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만다. 전날 밤 야생 멧돼지들이 내려와 와인을 만들어야 할 포도를 모두 먹어 치우면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화가난 엔지니어는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 그 중 일부는 이들의 식탁에 올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카버네 소비뇽 품종의 포도를 실컷 먹은 멧돼지 고기가 너무나 맛있었다. 특별한 맛에 엔지니어는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최고가 될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됐다.

가 아니다. 역동성 있는 멧돼지 드로잉이 모두 6가지다. 6본입 케이스에는 각각 다른 6개의 멧돼지 라벨이 붙어있다. 연간 약 만 병 정도 생산되는 멧돼지 와인은 카버네 소비뇽과 멀릿을 9대 1로 섞었다. 달콤하게 잘 익은 윤택한 검은 체리와 열매과일의 느낌이 허안으로 미끄러지듯 흐른다. 담배향과 흙내음, 감초 풍미도 느낄 수 있다.

와인은 힘있고, 농도도 짙지만 신세계의 카버네 소비뇽에 비해 덜 직선적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잡하고 오묘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20년 이상의 장기 숙성도 가능하다.

'캄포 디 사소 인솔리오 델 칭갈레' 역시 멧돼지 한 마리가 와인 라벨에 그려져 있다. 칭갈레는 멧돼지, 인솔리오는 멧돼지들이 떼를 지어 뒹굴며 장난치고 목욕하는 습지란 뜻이다.

캄포 디 사소 인솔리오 델 칭갈레도 국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시라와 카버네 프랑, 멀릿을 각각 30% 안팎으로 섞었다. 감칠맛 나는 과일적 풍미와 매끄러운 면감의 탄닌이 입안을 맴돌다가 예

스프레스와 같은 여운으로 마무리된다. 사소레갈레 와인너리에서 만든 레드와 화이트와인엔 모두 황금돼지 얼굴이 라벨을 빛낸다. 토스카나의 새로운 와인산지인 마렘마를 느껴볼 수 있는 와인이다.

레드와인인 '사소레갈레 로쏘 마렘마 토스카나'는 전통 품종인 산지오베제와 국제 품종인 카버네 소비뇽을 절반 가량씩 섞었다. 부드러움과 동시에 입안을 쪼여주는 탄닌과 긴 여운이 인상적이다.

화이트와인인 '사소레갈레 베르멘티노'는 전통 품종인 베르멘티노로만 만들어졌으며, 레몬, 감귤, 복숭아 등의 향과 함께 지중해 허브의 향도 느껴볼 수 있다.

풍요와 풍요가 만났다.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 얘기다. 올해 와인셀러에는 금빛 돼지와인으로 복을 한가득 담아 놔도 좋겠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행복 패키지'를 선보인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명절엔 힐링이 제격”

호텔, 특급 패키지로 설 겨냥

가족·연인 등 다양한 고객층 대상
풍성한 즐길거리·혜택 서비스 확대

특급호텔들이 '설 특수'를 겨냥해 알찬 패키지를 선보인다. 주말을 포함해 긴 연휴가 생기는 만큼 '호캉스'를 즐기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특급호텔들은 가족, 연인, 싱글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문화 체험과의 결합이나, 합리적인 가격대 등의 강점으로 고객 취향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호텔업계는 설 선물 세트로 명절 연휴맞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고가부터 저가까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다채로운 상품은 물론, 명절 음식 케이터링 등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 설에는 즐길거리와 혜택이 한층 풍성해졌다. 가족 단위 고객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체험이 연계된 패키지를 추천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진행하는 '2019 설날'이 대표적이다. 온 가족 맞춤형 패키지로, 아이스링크 무료입장 및 스케이트 대여, 아이스링크 스낵바 핫 초콜릿 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또, 남산골 한옥마을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겨울맞이 전통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행복 패키지'의 경우, 아이스링크 입장권과 조식, 석식을 포함한 식사 등 풍성한 혜택이 담겨있다. 남산 전경을 바라보며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객실 1박과 설 특선 저녁 메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명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

들을 위한 힐링 패키지도 있다.

컨싱턴호텔 여의도가 선보이는 '설 연휴의도' 패키지에는 헬로판다 힐링 키트 1세트가 포함돼 있다. 해당 키트에는 매직 디톡스 힐링 풋 패치, 온열 아이 마스크, 글로시 글러브스와 수딩 샴푸, 맘스 핸즈 힐링 온팩 등 5종이 포함돼 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쉐라톤 설' 패키지를 선보인다. 쉐라톤 호텔 로고가 자수로 새겨진 담요를 선물로 증정하며, 힐링에 최적화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투숙을 제공한다.

특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즐기고 싶다면 서울신라호텔, 서울웨스틴조선호텔의 패키지를 주목해보자.

먼저, 서울신라호텔의 '홀리데이 와이너리'는 '홀리데이 와이너리' 프로모션이 포함된 패키지다. 홀리데이 와이너리는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으로 유명한 서울신라호텔의 대연회장 다이내스티에서 열린다. 올해는 낭만적인 프랑스를 모티브로해 이국적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 상송 공연에 10여 종의 와인, 마리야주 안주가 준비된다.

서울웨스틴조선호텔의 '버블리 홀리데이' 패키지는 황금돼지해를 기념해 황금빛 풍선들로 장식한 버블리 와인 살롱라운지를 만나볼 수 있다. 디저트, 와인, 재즈 뮤직에 타로 마스터를 통한 신년 운세까지 확인해볼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객 맞춤형 DIY 패키지를 준비한 곳도 있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독산이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엑스트라 베드, 프리미어 라운지 이용권, 조식뷔페 등 선택 옵션을 취함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빈폴스포츠, 중고등학교 입학생 위한 '뉴비' 백팩

스포티한 감성·소프트한 디자인 감각
메쉬 포켓 등으로 자기만의 개성 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스포츠는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을 위한 신학기 가방 '뉴비(New Beanpoleport)' 백팩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뉴비'는 신입생, 초보자를 의미하며, 중고등학교 입학생도 포함된다.

빈폴스포츠가 새롭게 선보인 '뉴비' 백팩은 스포티한 감성에 라운드 형태의 소프트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트렌디한 실루엣에 세련된 디자인이 접목된 것이 특징이다. 블랙, 핑크, 아이보리, 그레이 등 색상으로 출시됐다.

빈폴스포츠는 성장기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방의 무게는 1kg 이하로 낮추고, 가방이 등쪽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곡선형 어깨 벨트를 적용했다.

또한, '뉴비'들이 자기 표현이 강한 세대인 점을 감안해 백팩 앞쪽에 메쉬(Mesh) 포켓을 달아 인형, 장난감, 참등을 넣을 수 있게 했다. 로고 프린트가 된 사이드 스트랩에는 카드지갑 등을 연결해 본인

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백팩 뒤쪽 하단에 시크릿 포켓을 더하고, 어깨와 등쪽 부분에는 에어 메쉬 소재를 적용해 착용감과 통기성을 확보했다.

빈폴스포츠는 지난해 8월 활동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능성웨어로 변신한 이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스포티한 감성을 더한 라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백팩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60% 이상 신장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브랜드 모델 트와이스를 앞세

워 젊은 스타일과 스포티즘 감성을 선보이고 있다. '뉴비' 백팩도 트와이스의 애칭을 더해 '트등이' 백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용선 빈폴스포츠 팀장은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며 컨셉이 충만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스포티한 감성과 트와이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디자인 뿐 아니라 본인만의 컨셉트를 추구할 수 있는 '뉴비' 백팩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전자랜드 '파워센터 세종점' 신규 오픈

전자랜드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총 280여평 규모의 '파워센터 세종점'을 17일 오픈했다. 올해 가전 양판업계 첫 신규매장이다.

파워센터 세종점은 세종시 1호 매장인 점을 감안해 시내 주요 생활권 고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나성동을 매장 입지로 선정했다. 전자랜드는 파워센터 세종점을 시작으로 올해 매장 출점 및 리뉴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규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살려 체험 중심의 프리미엄 매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2개층이다. 고객이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IT존, TV존, 계절가전존, 건강가전존, 주방가전존 등으로 구성했다.

전자랜드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방식을 업그레이드했다. '행사상품존'을 운영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행사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했다. 또, 최근 고객들이 모바일과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점을 반영해



전자랜드가 세종시에 '파워센터 세종점'을 신규 오픈했다. /전자랜드

관련 취급 품목을 늘리면서 'IT존'의 면적도 기존 매장 대비 확대했다.

집에 가전제품을 설치했을 때의 인테리어 분위기를 고려해볼 수 있도록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을 활용해 매장을 꾸몄다. '삼성전자 8K 체험존'의 경우, 방문 고객들이 뛰어난 화질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자랜드 파워센터 세종점은 오픈 축하 화환을 쌀화환으로 대신 받는다. 쌀은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SK KB 증권 권

물어보세요!
KB증권이 또 어떤 길을 개척할지

복합점포 확대, 비대면 계좌개설로 증권의 새로운 길을 열고
베트남 진출로 해외 투자의 성공적 길을 열어가는 KB증권!

국민의 투자에 힘이 되도록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KB증권은
그 어떤 투자의 물음에도 답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211호(2018년 10월 22일~2019년 10월 17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KB 증권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브리핑.

청소년 자발적 운영 '미래도전 프로젝트'

전남교육청, 내달 7일까지 접수

전라남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참가팀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전남형 학생 중심 체험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협업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기존에 운영되던 선상무지개학교, 울곡동일리더스쿨, 히말라야희망학교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대신해 추진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팀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 팀에 3명에서 10명 내외의 학생이 멘토 교사와 함께 진행한다. 오는 2월 7일까지 참가팀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를 거쳐 팀이 선정되면 3월 사전워크숍을 통해 계획서를 보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

인천시 '교통량 감소' 우회고가 철거

올 실시설계, 2021년 1단계 철거완료

인천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단계적 철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회고개교는 당초 내항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설치됐으나 북항, 신항 등 항만 확장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패턴 변화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4~6차로인 우회고개교는 일일교통량 41,000대~61,000대를 처리할 수 있으나, 2017년 10월 기준 일일교통량 17,648대다.

이에 시는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개항 창조도시 마중물사업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 자문 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민은 철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는 실행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교통흐름과 주변의 계획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우회고가 하부 도로개설 등을 선행한 후, 1단계 구간(길이 626.0m, 4차로)인 중부경찰서 입구부터 우회고가 진출입 램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구간(길이 650.0m, 6차로)은 중앙 2차선을 남겨 인천역 뒤 진출입로(총 2차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하부도로와 합친 총 4~6차선의 도로 용량을 확보해 교통흐름에 차질이 없게 할 예정이다. 고가 양측에 남는 각 2차선은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이동식 화분 등을 배치, 시민들의 다양한 실험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2단계 철거 시까지 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부도로개설, 2021년 1단계 철거를 완료할 방침이며, 실시설계 시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을 파악해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상상플랫폼, 1:8 부두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j@

안산 사동에 '사이언스밸리' 조성

경기도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 안산시·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오늘 협약... 기존개발 단점 해소

경기도가 안산시 사동 일대를 '사이언스밸리'로 조성한다.

경기도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기로 하고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

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부울경 단체장 "김해 신공항 백지화해야"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로 반대 "소음·안전·미래 등 해결 안돼"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경호 국회의원(부울경 검증단장),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은 지난 16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서 검증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과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차



오거돈 부산시장은 김해신공항의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부산시

된 행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기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또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중·대형 건설현장 15곳 점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등 살펴

광주광역시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업 법정사항 이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실태를 점검한다.

실태 점검은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민·관 건설현장 15곳을 방문한다. 점검반은 근로자 체불임금과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금 지급 보증 발급, 지역 주민 고용, 지역장비·생산자재의 구매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게 임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건설업주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운영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홍보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준수 사항을 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광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부실·불법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 지역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설 명절에 지역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의회, 건설협회, 공기업,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지난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TF를 구성해 지역 건설업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내 민간 대형건설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역민 고용, 지역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추천서를 제작해 전국 100대 종합 건설업체에 배부한 바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

광주시, 전문가 60명 위촉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등에 대해 자문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시는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분야별 특급건설기술자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새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2년이며,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주민을 대신해 세대 내부와 공동주택 외부 공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에 대해 사용검사 전 구조, 설비, 조경 및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를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한 시공자문 등을 하게 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상은 사업 승인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중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공동주택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5 | 해질 / 17:40

1월 18일(금) 음력 : 12월 13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1/4, 동두천 -9/6, 가평 -10/5, 파주 -12/5, 서울 -5/5, 양평 -10/5, 인천 -4/5, 수원 -5/4, 용인 -5/4, 평택 -8/6, 백령도 0/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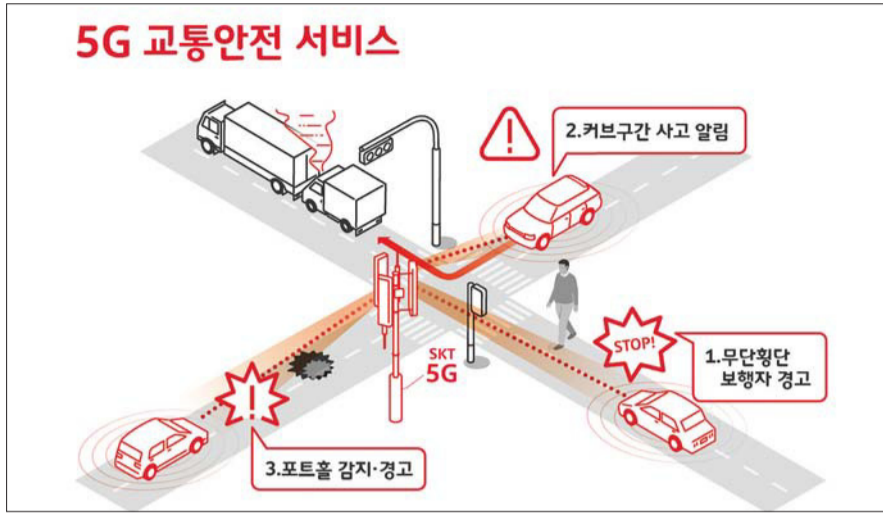
강남대로·통일로 등에 5G센서… 안전 교통체계 만든다

SKT·서울시, C-ITS 실증 추진
2020년 말까지 254억원 투입
자율차 주행 테스트베드 조성도

SK텔레콤은 서울시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C-ITS' 사업은 5G, 차량용 통신 기술 등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서울 주요도로에 5G 센서·IoT 구축 ▲버스·택시 등에 5G 차량통신 단말 보급 ▲데이터 수집 및 안전정보 전달을 위한 5G관제센터 마련 ▲미래 교통 수단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말까지다. 사업비는



/ SK텔레콤

약 254억원이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경인마포로, 통일로 등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및 도시고속도로 121.4km 구간이다.

이번 사업은 5G를 최초로 접목한 'C-ITS'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버스전용차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에 5G인

프라를 설치한다.

5G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인 차량용 5G 단말 2000여대를 버스, 택시,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공급하기도 한다. 5G V2X 기지국과 단말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5G버스·택시는 정류장·신호등 등과 수시로 대화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SK텔레콤과 서울시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파악 후 5G 차량에 경고를 전달한다. 또 'T맵'을 통해 일반 차량에도 교통 정보를 전달해 교통 사고를 줄인다.

아울러 SK텔레콤과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일대에 자율주행차량을 시범 운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올해 상반기에 조성한다.

테스트베드에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달리게 된다. DMC 지하철역

과 주요 건물을 오가는 SK텔레콤 자율주행 차량은 이르면 6월부터 운행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긴다.

SK텔레콤은 5G, 자율주행 등 ICT기술센터에서 수년간 개발한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1800만명이 쓰는 'T맵'을 통해 도로·요일·시간대·날씨별 빅데이터를 10년 이상 분석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조정밀지도'도 개발 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C-ITS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있는 미래 사업"이라며 "당사가 가진 글로벌 최고 기술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서울 흥은동에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건립

10개동에 총 80세대, 연면적 5679㎡
내달 입주공고… 3월 완공, 6월 입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80세대 규모의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이 들어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인 청년가구 주거 빈곤율이 37.2%까지 치솟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서대문구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변되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은동 일대에 소셜믹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셜믹스란 일반분양 가구와 장기전세 가구, 임대가구 등을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흥은동 산11-324 외 5필지 일대에 10개동(각 지하 1층~지상 5층) 80세대, 연면적 5679㎡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 규모는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 16세대(2개동) ▲1인 청년가구 40세대(5개동) ▲신혼부부 24세대(3개동)이다. SH공사가 건물을 매입했다



흥은동에 들어서는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조감도. / 서대문구청

며 서대문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 관리·유지 업무를 맡는다.

층수를 올려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문 구청장은 "이번에 흥은동에 지어지는 공동체주택은 공원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며 "무작정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거주했던 흥은동 사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56㎡에 방 3개로 구성됐다. 청년이 사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방의 개수에 따라 1~3명이 입주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은 20년, 청년은 만 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구는 입주를 희망하는 독립유공자와 4·19, 5·18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후손을 개별 방문해 인터뷰와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다. 경제상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인 청년가구에 공급되는 40세대 중 10%는 서대문구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년이 돼 퇴소한 이들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세대는 SH공사, LH공사 기준과 동일하게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3월 완공된다. 구는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6월 안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재산은 총 자산액 1억78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2545만원 이하(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여야 한다.

/ 김현정 기자 hjk1@

5호선 화곡역에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오는 2021년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57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역 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에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강서구 화곡동에는 지하 2층~지상 11층 연면적 2726.27㎡ 규모의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 9세대, 민간임대 48세대 등 총 57세대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시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조감도. / 서울시

는 주차장 총 23면 중 10% 이상을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동측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 가로

지하철역 350m 이내 '역세권' 3월 착공, 2021년부터 입주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축 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한다. 2020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축된 지구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교육박람회 '신기한 로봇' 체험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6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코딩, 로봇, VR 등 에듀테크가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 기자재, 교구 등 미래 교육산업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16일(수) 개막되어 18일(금)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박람회를 찾은 어린이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경기도 1년간 화재 9632건… 전년비 167건 ↓

2018 경기도 화재발생현황 분석
하루평균 26.4건, 인명피해 1.6명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7일 발표한 '2018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총 9632건의 화재가 발생해 61명의 사망자와 5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총 2,647억4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6.4건의 화

재가 발생해 1.6명의 인명피해와 7억 2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2017년에는 9799건의 화재로 78명이 사망하고 57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 2503억2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둘을 비교해 보면 화재건수는 167건, 사망자 17명, 부상자 36명이 줄었으며, 재산피해는 144억2200만 원이 증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건수 감소 이유로 작년 초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3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출발한 119소방안전페트롤의 적극적인 활동과 범국가적 화재안전특별조사, 기초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예방활동과 홍보를 꼽았다.

/ 경기=김승열 기자 kmsy@

종로·세종로 등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

서울시, 총 336곳 중 313곳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된 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분류된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

(폭 12m)에 총 336곳이 지정돼 있다. 총면적은 21.35㎢이며, 이는 시가지 면적의 5.75%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고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이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에 달한다.

지역별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나머지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계획이다.

/ 김현정 기자



[산업] 삼성전자 '가구 같은 가전' 무풍에어컨 공개 05



[바이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국가 지원 뒷받침땀 수출 100조 달성 가능 L2



떠먹는 요거트의 진화, 토핑에 캡슐까지... 발효유 대명사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㉔ 빙그레 '요플레'

떠먹는 요거트를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불려질 정도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요플레. 국내 발효유 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요플레가 지난해 1400억 원 이상 팔리며 호상요구르트 대표 빅브랜드로 우뚝 서고 있다.

◆국내 최초 떠먹는 요거트

요플레는 발효유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던 1983년 국내 최초의 떠먹는 요거트로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발효유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시장에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소디마(SODIMA)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출시된 요플레는 당시 물과 설탕의 배합에 소량의 유산균을 포함한 액상 요구르트 일색이던 국내시장에 정통 호상 발효유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린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플레의 출발이 순탄치 않은 않았다. 요플레 출시로부터 6년이 흐른 1988년 올림픽이 지나서야 비로소 경쟁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요플레는 너무나 빨리 나온 제품이었다. 독보적인 제품이라는 시장을 선점했다는 이점은 있으나 외롭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초기에 호상요구르트의 특유한 풍미가 액상 요구르트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입맛에 익숙치 않은 맛인데다 가격마저 비싸다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빙그레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프리미엄을 선호하며 유럽풍 정통 요구르트 맛에 익숙한 소비자를 찾아 나섰으며 88올림픽이 유치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발효유 시장이 자리를 찾게 되었다.

요플레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떠먹는 요거트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요구르트에 딸기, 복숭아, 과인애플 등과 같은 과일이 고루 섞여있는 형태인 요플레는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떠먹는 요거트의 대명사가 된 리딩 브랜드이지만 그대로 머물지 않고, 소비자 기호에 따라 품질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 개선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파악해 그에 대응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해온 결과다.

◆소비 트렌드 반영

최근 소비 트렌드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개발한 테이크아웃(take-out) 요거트, '오프룻'은 컵 안에 과육과 요거트를 담은 버블티 스타일의 요거트다. 간편하게 휴대 및 취식이 가능하며, 큼직한 과육으로 식감을 살리고, 굵직한 빨대를 이용해 빨아먹는 재미를 더해 먹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컵타입 요거트 판매 1위인 오프룻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출시한 대용량까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요플레 '포미' 역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 뛰어난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요플레 '포미'.



요플레 생산과정.



테이크아웃(take-out) 요거트 '오프룻'



드링킹 요거트 '요플레 케일요거트'.



디지털 발효유 '요플레 토핑' /빙그레

1983년 국내 최초 떠먹는 요거트 호상요구르트 대표 브랜드로 성장 발효유 시장 세계적 수준 발전시켜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포미' 과일·채소 넣은 드링킹 요거트 등 소비 트렌드 반영한 신제품 출시

난 맛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을 지향했다. 국내 떠먹는 발효유 시장 1위 브랜드인 요플레의 명성이 이어받은 만큼 유산균에도 신경을 써 요플렉스(Yo Flex) 유산균이 제품 한 컵당 500억마리나 함유돼 있어 장 건강을 고려했다. 플레인, 블루베리, 복숭아 3종으로 요거트와 과일이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기호에 맞게 섞어먹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떠먹는 발효유 용량이 대부분 80~90g 인데 비해 요플레 포미는 110g으로 넉넉한 용량이어서 아침 식사 대응으로도 즐길 수 있다. 용기도 컵 측면에 절취선을 넣어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까지 고려한 에코 컵(Eco Cup) 패키지를 국내 발효유 제품 중 최초로 적용했다.

요플레 브랜드 중 대표적인 마시는 타입의 '닥터캡슐'은 장까지 살아서 유산균을 컨셉으로 한 제품이다. 지난 2016년 출시 19년만에 리뉴얼한 닥터캡슐은 발효유의 핵심인 유산균주를 세계적인 유산균 제조회사인 듀폰사(社)의 Protect BL-04로 변경했다. 이러한 유산균을 2중 캡슐 속에 넣는 한편, 기존 제품 대비 캡슐의 양을 2배 이상 늘

려 '장까지 살아서 가는' 닥터캡슐의 특징을 살렸다. 거기에 홍삼농축액과 참다래 농축액을 첨가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제품을 위해 원재료부터 용기까지 전면적으로 변화를 줬다. 국산원유를 70%로 늘려 기존 제품 대비 2배를 사용했으며 페트 용기로 변경해 유통 및 보관의 안정성을 더했다.

빙그레는 새로운 타입의 드링킹 요거트 '요플레 케일요거트'는 10가지 과일과 채소를 넣은 제품이다. '요플레 사과&케일 요거트', '요플레 청포도&케일 요거트' 2종으로 출시되어 사과, 청포도,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등 총 10가지의 과일과 채소가 들어가 있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더욱이 과일, 채소 알갱이의 식감과 부드러운 요거트의 맛이 잘 어울려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 식사 대응으로도 손색이 없다. 제품은 휴대가 간편한 190ml와 가족 모두를 위한 700ml 용량으로 출시됐다.

지난 해 출시한 '요플레 토핑'은 새로운 디지털 발효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 '요플레 토핑 오프&시나몬'의 2종으로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무엇보다 토핑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주력했다. 요플레 토핑은 토핑의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원재료에 특별한 가공없이 그대로 부셔서 요거트와 분리해

포장했다. 먹기 직전에 요거트에 섞어서 먹음으로써 요거트로 인해 토핑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는 진한다크초콜릿과 바삭한 브라우니 쿠키, 풍미 깊은 슬티드 카라멜을 조화롭게 섞었으며, '요플레 토핑 오프&애플시나몬'은 고소한 오프와 애플시럽을 넣어 상큼함을 살렸다.

빙그레 관계자는 "요플레는 떠먹는 요거트의 일반명사화 된 강력한 브랜드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과 신제품 개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i7854@metroseoul.co.kr

